



동양 속 작은 유럽
마카오 도보여행

澳門

일러두기

테마별 여행 소개 및 한눈에 보이는 상세 지도

마카오정부관광청에서 새롭게 소개한 4가지 테마의 도보여행 코스로 마카오 반도 지도가 더욱 세밀해졌다. 대부분의 코스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쉽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주요 지역 상세 지도도 실었다. 마카오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전도를 삽입하였다.

이동 시간 표기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동 시간을 표기해두었다.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이동 장소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가능해볼 수 있다.

현지 사용이 가능한 명칭 표기

마카오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를 공식언어로, 광둥어를 생활어로 사용한다. 마카오의 호텔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에서 만나는 일반인은 대부분 영어를 전혀 못한다. 길을 묻거나 목적지를 찾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자로 된 이름을 보여주는 것. 주요 관광지 소개 면에 한자 이름을 함께 소개했다. 그리고 지도상 주요 도로의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표기하였다.

친절하고 꼼꼼한 여행 정보

루트 지도 외에도 세나도 광장, 타이파 빌리지, 코타이 스트림, 클로안 빌리지 등 대표 관광지 및 추천 맛집, 쇼핑 장소, 일반 여행 정보 등을 담아 마카오를 여행하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Contents

- 02 **Part 1**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몰랐던 마카오의 역사
- 04 **Part 2**
마카오 반도 코스별 여행지
 - 06 **ROUTE 1 Heritage Walking Tour**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여행
plus macau 김대건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 13 **ROUTE 2 A Tour of Nature and Creativity**
자연과 창조의 아침
plus macau 마카오 특별 과외
 - 21 **ROUTE 3 A Tour of East Meets West**
동서의 만남
 - 22 **ROUTE 4 A Tour of Arts and Culture**
예술과 문화 코스
plus macau 마카오를 두 눈에 담다
- 37 **Part 3**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매력적인 도시
타이파 빌리지, 코타이 스트립, 콜로안 빌리지
 - 38 골목을 누비는 즐거움 타이파 빌리지
 - 42 화려함으로 수놓은 코타이 스트립
 - 46 가는 곳마다 시선이 머무는 바닷가 마을 콜로안 빌리지
 - 50 plus macau 마카오의 밤 100배 즐기
- 51 **Part 4**
마카오 즐기는 법
관세 소비세 없는 마카오 쇼핑
마카오에서, 마카오니까 즐길 수 있는 시간 공연
스릴 넘치는 마카오에서의 모험 액티비티
일년 365일 새로운 마카오 이벤트&축제
마카오, 그리고 이외의 마카오의 발견 박물관
- 57 **Part 5**
마카오 여행 입문서
마카오 기본 정보
마카오 가는 법, 마카오에서 오는 법
마카오 시내 교통수단
- 64 마카오 호텔 리스트

글 전영운, 마카오정부관광청
사진 표지/이은석 내지/김정호, António Leong,
이은석, 송근하, 마카오정부관광청
일러스트 김유경

발행일 2014년 3월 31일
발행처 마카오정부관광청
서울 중구 을지로 16, 908호(을지로 1가, 백남빌딩)
Tel 02-778-4402 Fax 02-778-4404
E-mail korea@macautourism.kr
편집·제작 (주)RH Korea 02-6443-8888

※모든 저작권은 마카오정부관광청에 있습니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의 사전 허가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원본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마카오의 역사

마카오의 발견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맺어진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에 의하면 신대륙은 스페인의 땅이었고, 아시아는 포르투갈의 땅이어야 했다. 그래서 대항해시대를 주름잡던 두 나라는 서부개척시대의 땅따먹기처럼 각각 동쪽으로 서쪽으로 달려갔다. 1513년 포르투갈은 중국 연안에 도착했고, 1535년 중국과 최초로 접촉을 시도했다. '물에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이유로 상륙허가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포르투갈은 매년 은 20kg을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마카오에 머물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마카오 지배

포르투갈이 상륙한 사이 명나라는 청나라로 변했고, 곧 서구열강이 중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목도한다. 1842년 청나라 군대는 영국군에게 대패했다. 포르투갈은 뒤늦게 본국으로부터 군대를 차출해 그 전까지 중국령이었던 타이파와 콜로안 섬을 점령했다. 힘 빠진 청나라 조정은 1887년 리스본에서 의정서를 체결하고 마카오 지역에 대한 포르투갈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한다. 자유무역항 마카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인 1951년 포르투갈의 해외주(海外州)로 포르투갈의 공식적인 영토로 편입된다.

독립운동

중국이 한참 문화혁명의 와중이던 1966년, 마카오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한다. 초등학교 개축문제에서 발생한 이 사소한 사건은 급기야 독립구호까지 등장시키며 격렬함이 더해졌다. 세나도 광장이 몇 달간 이들에 의해 점거되고, 해산과징에서 경찰이 발포해 몇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발끈했고 인민해방군은 마카오 국경 인근으로 이동했다. 포르투갈 식민당국은 마카오를 지켜낼 힘이 없었다. 사망자에게 배상하고, 발포 책임자를 마카오에서 추방하는 선에서 갈등은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마카오에서 누가 실질적 강자인지는 판가름이 나 버렸다. 1973년 마카오는 속주에서 자치령으로 변경되며, 마카오 주민에 의한 자치권이 부여됐다.

마카오의 중국반환

반환 과정은 순조로웠다. 포르투갈은 즉각 반환을 주장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미 영국의 지배하에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한 홍콩 반환을 앞두고, 마카오 반환이 홍콩 주민을 자극할 수 있다 생각해 오히려 홍콩 반환 뒤에 마카오 반환을 부탁하는, 즉 서로 마카오의 지배권을 미루는 특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홍콩보다 2년 늦은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는 500년간의 긴 여행을 끝내고 중국의 일원으로 다시 합류했다.



마카오의 오늘

마카오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1국가 2체제로, 반환 이후 50년간 특별자치를 누릴 수 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의 법이 유지되고 있고, 포르투갈어도 여전히 공용어로 쓰이며, 길거리 이정표에 당당히 병기되고 있다. 반환 이후 마카오는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강화하며 경제적으로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상업자본은 마카오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오락도시로 성장시켰다. 증가하는 세수입은 마카오의 경제 영역을 크게 넓혀놓았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 설비를 증축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국제 행사를 전세계에 공표하고 있다. 마카오 정부는 그간의 이미지였던 카지노 산업에서 벗어나 유패한 비즈니스, 가족여행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유네스코도 2005년 마카오반도의 포르투갈 식민지 유적들을 보호유산으로 지정하며 한결 볼거리 있는 관광지로서의 영예를 부여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마카오는 꽤나 매력적인 여행지다. 예나 지금이나.



마카오라는 지명의 기원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은 종종 해프닝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특히 지명을 정함에 있어서는 종종 비슷한 실수들이 벌어진다. 마카오라는 이름 역시 그렇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최초로 상륙한 곳은 현재의 아마사원 근방이었다고 한다. 아마 황량한 이 일대에서 그나마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아마사원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동행한 통역관을 통해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사원에 있던 중국인들은 이 곳의 지명이 아닌 사원이 뭐냐는 말로 오해해서 '여기는 아마사원이요'라고 말했다. 참고로 아마 사원은 현지에서 마꼭(媽閣)이라고 발음한다. 이 마꼭에서 마카오라는 지명이 유래하지 않았겠냐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참고로 중국사람들은 마카오를 아오먼, 광둥어로는 오문(澳門)이라고 부른다.

'매캐니스'의 뜻

마카오의 역사를 살펴볼 때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매캐니스(Macanese)는 포르투갈인과 중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을 말하는 것. 마카오에서 맛볼 수 있는 매캐니스 요리와 같이 이들의 문화를 '매캐니스 문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PART
2

마카오 반도 코스별 여행지





마카오 반도

마카오의 마카오이자 최초의 마카오. 1513년이래, 마카오라는 지명은 약 300년간 마카오 반도만을 뜻했다. 포르투갈은 바위로 둘러 쌓인 이 작은 반도를 동방선교의 전초기지로 아시아 공략의 거점으로 삼았다. 미색의 성당, 빛나는 타일, 물결문양이 굽이치는 광장, 동방의 리스본 마카오는 이렇게 탄생했다. 동양과 서양이 동거하는 기묘한 풍경, 그리고 그 속의 편안함. 곳곳에 널려있는 유네스코 지정 유적들. 탈 것보다 걸을 수 있음이 행복한 곳. 바로 마카오의 마카오, 마카오 반도다.

Get to |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버스 3, N1A를 타면 세나도 광장 앞 新馬路 Avenida de Almeida Libeiro에서 하차한다. 마카오 국제 공항에서는 한번에 세나도 광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택시를 타거나, 리스보아나 그랜드 리스보아 방향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들어온 후,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주요 지점의 이름과 위치를 알아두면,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알아 두면 유용하다.





Heritage Walking Tour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여행



마카오 반도 클래식 투어라고 보면 된다. 가장 핵심적인 볼거리만 추린 도로 코스로, 여행자들은 마카오 반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세나도 광장의 북쪽과 남쪽 길을 따라 걷게 된다. 광장 주변의 화려함, 퇴락한 옛거리, 그리고 마카오 내항으로 이어지는 옛사람들의 채취가 걷는 내내 여행자들을 매혹시킨다.

ROUTE1 | 소요시간 약 2시간

밀리터리 클럽 - 성 프란치스코 공원 - 프라이아 그란데 대로 - 중앙우체국 - 민정청사 - 삼카이뷰쿤 사원 - 동선당 역사기록 전시관 - 전당포 박물관 - 펠리시다데 거리 - 칼데이라 거리에서 로차스 거리까지 - 마카오 내항 - 아편 하우스 - 폰테오르타 광장





01 | 밀리터리 클럽 澳門陸軍俱樂部

Clube Militar de Macau

1872년 건설된 마카오 군사령부 부속건물 중 하나다. 현재에는 전역한 군인들의 클럽이자, 아주 관참은 포르투갈 레스토랑으로 이곳을 이용할 경우 재킷이나 구두 등 약간의 드레스 코드와 사전 예약은 필수다. 지금이야 복잡한 도로 한복판에 있다 보니 길쭉한 건물의 전체모습을 조망하기도 어렵지만, 건립 당시인 1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시에는 프라이아 그란데는 독을 쌓아 조성한 해변도로였고, 그 앞은 바로 바다였다.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실고, 뱃전에서 바라보는 당시의 위용은 현재와는 전혀 느낌이 달랐을 터. 잠깐 눈을 감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파도소리가 들려온다면 성공!

Getto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버스 10, 10B, Education & Youth Affairs Bureau 하차, 도보 1분

Open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관만 감상해야 한다



02 | 성 프란치스코 공원 加思欄花園

Jardim de S. Francisco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1580년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에 의해 건설됐다. 밀리터리 클럽부터 공원 위의 마카오 보안부대 사령부 건물까지의 고지대가 바로 초창기 포르투갈이 머물던 구역에 속한다. 즉 이 일대가 바로 최초의 마카오 탄생지라고 보면 된다.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팔각정은 도서관 건물로 현재에도 마카오에서 가장 볼비는 도서관 중 하나다.

Getto 밀리터리 클럽 바로 옆



03 | 프라이아 그란데 대로 南灣大馬路

Avenida da Praia Grande

한때는 마카오 반도의 남쪽 끝에 속하는 해안도로였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그라이아 그란데 남단으로도 몇 블록에 걸쳐 상업지가 생겼고 그 위로는 건물들이 들어섰다. 프라이아 그란데 대로의 서쪽부분은 해변 도로의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바다를 매립해 호수를 만든 탓에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다. 한때 이 길 앞으로 파도가 일렁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Getto 밀리터리 클럽과 성 프란치스코 공원 앞의 큰 길



04 | 중앙우체국 郵政總局

Estação Central Dos Correios de Macau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우체국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884년이다. 그 후 7년이 지난 1891년 우체국을 설립, 아시아에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우편과 함께 전신업무를 겸했고, 1962년 이후부터는 방송국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현재의 건물은 1929년에 건설된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아르 데코(Art Deco) 건축물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우표수집가라면 안에 들어가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예쁜 장한 우표를 구경해보자.

Getto 프라이아 그란데 대로를 따라 직진하다 나오는 세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도로 3분

Open 09:00~18:00(월~금), 09:00~13:00(토)

05 | 민정청사 民政總署大樓

Edifício do leal Senado

포르투갈 식민 통치의 상징, 식민정부의 의회로 포르투갈 총독과 함께 마카오 지배의 양대 축이었던 곳이다. 1784년 처음 건설되었는데, 당시에는 마카오 행정부의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요즘이야 세나도 광장이 더 유명하지만, 사실 세나도 광장은 민정청사에 딸린 광장, 즉 서을 시청과 시청 광장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면 된다. 현재의 건물은 1874년에 재건됐다. 내부가 꽤 흥미로운데, 특히 2층의 포르투갈풍 정원과 3층의 의회구역에서는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보기에 손색이 없다. 반짝이는 마룻바닥과 은은한 상들리에, 육중한 테이블, 그리고 창틀으로 보이는 세나도 광장의 광경을 훑쳐보자. 의회구역과 이어져있는 도서관은 중국 최초 포르투갈어 복사본인 "아 아벨하 다 차이나 (A Abelha da China)"가 소장되어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또 의회 안에 마련된 작은 예배당 역시 한국 드라마 "궁"의 결혼식 장면 에 등장한 의외의 명소다.

Getto 중앙우체국을 등지고, 맞은 편, 두 시 방향

Open 전시관 09:00~21:00(화~일),

정원 09:00~21:00(월~일)





06 | 삼카이부룬 사원 三街會館 Sam Kai Vui Kun

한 블록 차이로 포르투갈풍의 화사함은 중국 중세의 장중함으로 거듭난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한가운데 삼카이부룬(三街會館)이 있다. 이 일대, 즉 세나도 광장의 서쪽길은 과거에 삼카이(三街)라 불리는 중국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변화가였다. 이 거리의 중국 상인들을 위한 일종의 길드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 길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빈 건물에 관우신상을 비롯한 도교의 신들이 입점(?)하며 현재는 아예 관우사당(關帝古廟)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삼국지의 관우가 왜 묘셔져 있나 의아할 수 있는데, 중국사람들은 관우를 재물의 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Get to 세나도 광장 입구에서 분수대를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골목 **Open** 08:00~18:00



07 | 동선당 역사기록 전시관 同善堂歷史檔案陳列館

Arquivo Histórico Tung Sin Tong

마카오 최대 규모의 중국계 자선단체다. 20세기 초의 마카오는 중국 본토의 상황에 따라 대규모 유민의 유입이 일상적인 땅이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 동선당은 마카오 최초로 무료 진료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개설, 빈민과 전쟁 고아, 미망인들을 보살폈다. 현재도 동선당의 무료 진료 기조는 변함이 없다. 마카오에서 만날 수 있는 오블리즈 노블리제의 전형이다. 전시관에는 동영상을 통해 동선당이 그간 걸어온 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Get to 삼카이부룬 사원에서 도보 3분

Open 09:30~17:30(화요일, 공휴일 휴무)

08

전당포 박물관 典當業展示館

Espaço Patrimonial - Uma Casa de Penhores Tradicional

1917년에 설립된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전당포 중 하나이다. 당시 전당포 재벌로 이름이 높던 카우 호 녕(Kou Ho Neng 高可寧)이 소유주였다. 참고로 카우 호 녕은 그가 살던 집도 보존 건물일 정도로 마카오에서는 꽤 알아주던 부자였다. 현재는 마카오 정부에 의해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내부에는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데, 근대유적에 관심이 있다면 방문해 볼만하다.

Getto 세나도 광장을 등지고 新馬路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3~4분 정도 가면 된다. 삼카이부쿤 사원에서 新馬路로 나오는 길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Open 10:00~19:00(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Ticket MOP5



09

펠리시다데 거리 福隆新街

Rua da Felicidade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기다란 골목길이다. 한자로 福隆新街라고 쓰는데, 의미는 새로운 행복의 거리라는 뜻이다. 운택해 보이는 이름과 달리 이 골목의 과거는 흥등가였다. 당시 흥등가는 입구를 붉은 색으로 칠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어두웠던 과거와 달리 펠리시다데는 마카오 반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국풍의 거리로 최근에는 여행자들의 발길도 찾아지고 있다. 골목 양편에는 저가 샵스핀 수프, 북한 정부 직영의 인삼가게를 비롯해 아몬드 쿠키, 원탕면 집들이 줄지어 성업 중이다. 최근에는 저가 게스트 하우스도 속속 입점 중이라 마카오 배낭여행자들의 메카로 떠오르는 중이다.

Getto 동선당 역사기록관에서 Avenida de Almeida 방향으로 세 블록을 직진하면 나오는 길



10

칼데이라 거리에서 로차스 거리까지**白眼塘橫街 往 火船頭街**

Rua da Caldeira to Rua das Lorchas

펠리시다데 거리에서 직진하면 곧 칼데이라 거리로 연결된다. 이 일대에는 마카오 전통의 건어물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여행자들의 눈길을 끈다. 특히 염장 건조한 대구는 마카오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 한국의 고등어 자반을 말려냈다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조개 관자, 해삼 등 중화요리의 고급 식재료가 전시되고 있다. 짝조름한 바다내음을 맡으며 지나가면 된다.

Getto 펠리시다데 북쪽길이다. 길을 따라 쪽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1 | 마카오 내항 內港

Porto Interior

마카오 반도의 서쪽 끝, 중국의 주하이시와 마주보고 있는 항구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1~34번까지의 항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유명무실. 건너편 중국과 몇 척의 연락선이 오가는 걸 빼고는 존재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다. 14번 부두의 경우는 페리 터미널로 쓰이고 있다.

Get to 로차스 거리 맞은 편이다. 항구로 접근은 불가능하며 외관만 감상할 수 있다.



12 | 아편 하우스 鴉片屋

Casa de ópio

1857년 중국과 영국, 프랑스가 맞붙은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전역에서의 아편 무역이 합법화 된다. 아편무역의 합법화는 같은 시기 마카오에서도 활짝 열렸다. 아편은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다. 사회의 하층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편의 연기와 함께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렸고,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아편을 피우며 삶을 연소시켰다. 1880년에 지어진 아편 하우스는 바로 상류층의 아편 카페 역할을 하던 곳이다. 물론 모든 종류의 마약이 불법화된 현재는 앞서 소개한 동선당 제2 진료소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다.

Get to 로차스 거리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다. 도보 약 5~7분



13 | 폰테오르타 광장 柯邦迪前地

Praça de Ponte e Horta

길이 105m, 폭 40m가량의 작은 광장이다. 현재는 근린공원의 느낌이지만, 한때 폰테오르타 광장은 중국최초의 아편무역 전용 부두였던 곳이다. 폰테오르타 광장의 길쭉한 모양새는 원래 물길이 들어오던 부두를 매립해 버렸기 때문. 폰테오르타로 들어온 아편은 바로 옆 아편 하우스에 모인 후, 일부는 그 자리에서 소비됐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밀수출됐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최대의 흑역사가 숨어있던 곳이라는 이야기.

Get to 아편 하우스 바로 옆

시월초오일로 十五月初五日街

Rua de Cinco de Outubro

펠리시타데 거리처럼 독특한 거리 풍경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곳 역시 '올드 타운'으로서 마카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숨은 명소다. 마카오에서 제일 오래된 약방과 찻집에서 은근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왠지 낯익은 차찬탱의 소음이 더욱이 국적인 곳.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타임머신을 탄 듯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Get to 소피텔 마카오를 등지고 Avenida de Almeida Rineiro를 따라 내려오다 왼쪽 두 번째 골목



김대건 신부의 숨결을 찾아서

마카오에는 총 서른 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한국인에게 반가운 곳이 있다. 바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의 동상과 유해가 묻혀있는 까모에스 광장과 성 안토니오 성당, 성 자비에르 성당이다.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까모에스 광장 白鴿巢前地

Praça Luís Camões

까모에스 공원(白鴿巢公園, Jardim da Gruta de Camões) 바로 앞에 있는 광장으로,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광장 근처에는 까모에스 공원 이외에도 까사 가든(東方基金會會址, Casa Garden)과 신교도 묘지(基督教墳場, Cemitério Protestante), 그리고 성 안토니오 성당(聖安多尼教堂, Igreja de Santo António) 등이 있다.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은 아니지만 이 공원이 우리에게 남다른 것은 바로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세운 것으로, 꽃과 나무들로 잘 꾸며져 있으니 공원 산책도 하고 김대건 신부의 동상도 찾아보자.

Get to 세나도 광장에서 도보 25분.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갈 때는 성당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 된다. 도보 1분. 또는 버스 8A·18·18A·19·26번 이용, Praça Luís Camões에서 하차해도 된다.



성 안토니오 성당 聖安多尼教堂(花王堂)

Igreja de Santo António

마카오에서 오래된 성당 중 하나. 1558~1560년에 지어졌는데, 이후 1874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현재의 모습은 1930년대에 재건한 것이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바로 김대건 신부가 신학을 공부했던 곳이며 현재 그의 발등 뺏조각이 성당 제단 아래쪽에 안치되어 있다. 또 성당 별실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목상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성 안토니오 성당에는 한국교구 소속의 한국인 신부님이 상주하고 있다. 만약 마카오의 가톨릭 역사와 김대건 신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성당 사무실에 잠깐 들러볼 것. 운이 좋다면 친절한 한국인 신부님께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Get to 까사가든 앞. 성 바울 성당의 주차장에서 갈 때는 왼편의 구시가지 성벽의 아치문을 지나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도보 6분 **Open** 07:30~17:30(한국어 미사: 18:00 시전미사)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路環聖方濟名聖堂

Igreja de S. Francisco Xavier

아시아 선교에 힘썼던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를 기리는 성당으로 콜로안 빌리지 한 가운데 있다. 노란색 빛깔의 성당은 마치 장난감처럼 아지각지고 예쁘다.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예배당과 교의 선녀처럼 묘사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림,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Get to 콜로안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5분 **Open** 10:00~17:00



Point 1 세계문화유산이 30개나!

마카오의 세계문화유산들은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골목골목을 탐험하며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특히 아마 사원 바로 앞의 바라 광장이나 성 아우구스티네 성당 옆의 성 아우구스티네 광장 등 건물과 그 앞의 광장이 각각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면적으로는 서울의 구(區)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마카오에 이렇게 많은 유적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세계문화유산은 아직까지도 마카오 주민들이 일을 하거나 미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 흥미롭다.

Point2 세계문화유산 표시, 갈색 기둥을 찾아라

광장을 걸어 다니다 보면 철로 만들어진 갈색 기둥을 만날 수 있다.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이 '세계문화유산'임을 알려준다. 거리가 복잡해 유적지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이 갈색 기둥을 찾으면 된다. 기둥에는 지명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자. 간혹 도면이 함께 첨부된 곳도 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다.



A Tour of Nature and Creativity

자연과 창조의 아침

여태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마카오 반도의 비경이 이 코스의 핵심이다. 라자리스 구역은 마카오반도에서 가장 예쁜 길 중 하나며, 로우임옥 정원과 관음당은 중국 고대의 향기가, 레드 마켓에서는 마카오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하다. 초행자보다는 두 번이상 마카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 권하고 싶은 길이다.



ROUTE2 | 소요시간 약 2시간

성 바울 성당의 유적 - 나차 사원 & 구시가지 성벽 - 성 미카엘 공동묘지와 성당 - 성 라자리우스 성당 - 성 라자리우스 성당 주변 - 탐색광장 - 로우임옥 정원 - 마카오 차 문화관 - 손문 기념관 - 관음당 - 레드 마켓





01 | 성 바울 성당의 유적 大三巴牌坊

Ruínas de S. Paulo

세나도 광장과 함께 마카오의 랜드마크. 성당이 아닌 유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성당 전면부와 계단, 그리고 건물 토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연극무대처럼 성당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 벽면이 이 곳의 전부. 1603년 처음으로 건설된 성 바울 성당은 마카오 동방선교의 거점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이름을 높였다. 성당은 아시아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교육기관이기도 했는데, <천주실의>의 저자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도 이 곳 출신이다. 성당은 1835년 포르투갈이 성당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던 즈음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어 버린다. 비극 속에서도 기적은 있는 법, 성당 안에 모셔져 있던 천사장 미카엘(Michael)을 그린 그림 한 점만은 불길 속에서도 아무런 그늘을 없이 발견된다. 그림은 성당유적 뒤편, 지하로 연결되는 천주교 예술박물관 및 묘실(Museu de Arts Sacra e Cripta)에서 관람 할 수 있다.

Getto 세나도 광장에서 이정표를 따라 도보 10분 **Open** 천주교 예술박물관 묘실 09:00~18:00(화요일 14:00까지)



02 | 나차 사원 & 구시가지 성벽

哪咤廟 & 舊城牆遺址

Templo de Na Tcha & Troço das Antigas Muralha de Defesa

1888년에 지어진 도교사원. 당시 마카오 일대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민심이 뒤숭숭했는데, 바로 이 시기 귀신을 쫓는다는 도교의 신 나차를 모신 사원이 건설됐다. 사원은 그저 전각이 하나 있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사원 곁에 있는 성벽은 1569년 초에 포르투갈인이 쌓은 것으로, 초기 마카오의 영역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구시가지 성벽을 가로지르는 길로 나가면 안토니오 성당과 까모에스 공원으로 갈 수 있다. 성벽 바로 뒤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차 신에 대한 설명과 나차 축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작은 나차 박물관이 있다.

Get to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에 위치 **Open** 나차 박물관 10:00~18:00(수요일 휴관), 나차 사원 08:00~17:00(월~일)



03 | 성 미카엘 공동묘지와 성당

聖味基墳場·聖彌爾爾小堂

Cemiterio de S. Miguel Arcanjo & Church

1854년에 건립된 공동묘지. 일반적으로 로만 카톨릭 신자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카톨릭 교회에서 위령의 날(All Soul's Day)로 정한 11월 2일에는 기념미사가 마카오 정부 주관으로 열린다. 특히 미카엘 공동묘지에는 역대 고위 관료들의 무덤이 많아, 최소한 성 미카엘 공동묘지만큼은 한국의 현충일을 방불케 하는 엄숙함을 느낄 수 있다. 여행자들이 주목할만한 볼거리들은 제각각 모양으로 한껏 멋을 낸 비석과 무덤 조각. 그리고 매일같이 와서 꽃을 놓는 유족들의 정성이다.

Get to 성 라자레스 성당에서 도보 3분

Open 08:00~18:00



04 | 성 라자리스 성당 望德聖母堂
Igreja de S. Lázaro

1560년에 건설된 마카오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다. 당시 주교였던 카루네이로(Belchior Carneiro Leitão)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애초 용도는 한센병 환자를 위한 일종의 구호 목적의 성당이였다. 참고로 라자리스는 예수에 의해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로만 카톨릭에서 성 라자리스는 한센병 환자의 수호자로도 알려져 있다. 작은 마카오에 한센병 환자가 넘쳐 날리는 없었고, 이후 성 라자리스 성당은 중국인 신자들의 성당처럼 쓰이게 된다.

Get to 성 바울 성당 유적지에서 도보 5분

05 | 성 라자리스 성당 주변
Igreja de S. Lázaro perto

펠리사데가 마카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국풍의 거리라면, 라자리스 성당 주변의 골목들은 마카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르투갈풍 거리다. 크림옐로우 톤의 포르투갈풍 가옥과 물결 문양의 자갈포장도로, 건물 2층에 설치된 아치형의 주황색 가로등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일대는 최근 문화예술 센터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텐 판타지아(10 Fantasia), 알베르 게 SCM (Albergue SCM), 타이 펑 통 예술관(Tai Fung Tong Art House) 같은 크고 작은 갤러리나 전시관들이 눈에 띈다. 이 중 하나인 마카오 스토리 하우스(Macao Story House;澳門故事館)는 라자리스 성당 주변 골목에 대한 옛 사진과 함께 몇몇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내하고 있는 곳이다. 먼저 이 곳에 들린 후, 골목여행을 다녀보면 조금 더 재미있다.

Get to 성 라자리스 성당 주변

Open 마카오 스토리 하우스(10:00~17:00)



06 | 탐석광장 塔石廣場

Praça do Tap Seac

2007년 7월에 문을 연 마카오의 새로운 명소로 13,000㎡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카오 문화부, 마카오 중앙도서관을 끼고 있는 광장으로, 마카오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인 카를로스 메레이로스(Carlos Marreiros)의 작품이다. 마카오 최대의 문화 공간을 꿈꾸는 곳답게 광장 한편에서는 늘 크고 작은 전시나 행사, 자그마한 공연이 이어진다. 마카오 현지인들의 역동성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Get to 성 미카엘 공동묘지에서 도보 3분



07 | 로우임옥 정원 盧廉若公園

Jardim de Lou Lim Ieoc

마카오 출신의 부호였던 로우 카우의 개인 정원이었던 곳으로 1906년 건설됐다. 건설 당시 이름은 예원(豫園)이었는데, 상하이의 유명한 정원에서 따온 이름이다. 정원은 강남정원의 공식인 인공적 자연미 구축을 교과서적 따르고 있다. 산맥을 묘사한 가산(假山)은 쑤저우의 명원 사자림의 감흥이, 연못을 가로지르는 구곡교(九曲橋)에서는 상하이의 느낌이 묻어난다. 이른 아침 정원을 가득 메운 마카오 노인들의 태극권 연무를 보고 싶다면, 중국의 어느 도시에 와있는 것 같다.

Get to 탐석 광장과 성 미카엘 공동묘지 사이길인 Rua do Tap Seac을 따라 도보 5분 **Open** 06:00~21:00



08 | 마카오 차 문화관 澳門茶文化館

Casa Cultural de Chà de Macau

로우임옥 정원에 딸린 건물을 2005년 차 문화관으로 개조해 개관했다. 1층에서는 예쁘장한 중국풍의 다구(茶具)들을 전시하고 있고, 2층은 다관(茶館)처럼 꾸며놨는데, 안타깝게도 차를 시음하거나 구입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시음 및 다도 강좌를 열기도 하니 마카오정 부관광청 웹사이트 내 "왓츠온(What's On)" 소식지에서 일정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차 문화관과 이어진 전시공간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상시적으로 열리니 참고 하자. 내부만큼 흥미로운 건 건물의 외관이다. 전형적인 포르투갈풍 건축 양식에 지붕만 중국식 기와를 얹어 꽤 독특한 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Get to 로우임옥 정원에서 연결

Open 09:00~19:00(화~일)



09

손문 기념관 澳門國父紀念館

Casa Memorial do Dr. Sun Yat Sen em Macau

2,000년간 유지되던 봉건제하의 중국은 1911년 손문에 의해 주도된 신해혁명으로 공화정 시대를 연다.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 손문은 홍콩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후, 마카오에서 의사생활을 했다. 현재 기념관으로 쓰이던 건물은 손문의 아들에 의해 지어졌다. 스페인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과 같은 무어 양식의 건물로 기하학에 근거한 정교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기념관 안에는 손문의 동상과 함께, 그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한 각종 사진, 문헌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Get to 마카오 차 문화관에서 도보 3분

Open 10:00~17:00(수~월)



10

관음당 觀音堂

Templo de Kun Lam

마카오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 본당적인 대웅보전(大雄寶殿)의 불상을 보지 않는다면 마카오에 흔한 도교사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마카오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불교 사원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깜짝 놀랄만큼 많은 영정사진과 위패가 사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한 이 곳은 역사적으로 더 흥미가 있는 곳인데, 1844년 중국과 미국의 첫 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아직도 그때 협정이 체결된 테이블이 보관되어 있다.

Get to 손문 기념관을 마주보고 Rua de Silva Mendes를 따라 오른쪽으로 직진, 高士德大馬路 Avenida de Horta e Costa, 雅廉訪大馬路 Avenida do Ouvidor Arriaga를 건너 美副將大馬路 Avenida do Coronel Mesquita에서 길 건너 왼쪽, 버스 정류장 이름은 관음당(觀音堂 Kunlam Temple)이다. **Open** 08:00~17:00

11

레드 마켓 紅街市

Red Market

재래시장을 빌딩 안에 유치한 시장형태로 마카오 사람들은 흥까이시라고 한다. 1936년에 지어진 건물로, 층에 따라 육류, 과일, 해산물 코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육류 시장의 경우는 직접 도살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야채, 과일, 해산물 코너 정도만 둘러보길 권한다. 만약 현지인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레드마켓 남쪽 삼장덕(三盞燈 Three Lamps District)구역을 둘러보자. 중국에서 가져온 저렴한 옷들을 판매하는 일종의 로컬 패션 마켓이다.

Get to 관음당을 등지고 美副將大馬路 Avenida do Coronel Mesquita를 따라 오른쪽으로 7분 가량 직진하면 罈些喇提督大馬路 Avenida do Almirante Lacerda 교차로 나온다. 여기서 왼쪽으로 2분만 가면 레드마켓에 도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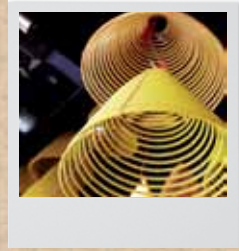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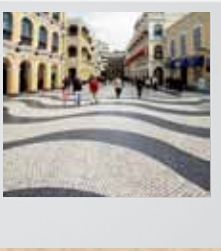


좀 많이 특별한 곳, 그래서 매우 즐거운 곳

마카오 특별 과외

어디를 가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마카오에 대해 알아두면 여행이 더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



* 마카오의 광장이나 길바닥은 모자이크로 된 곳이 많다

마카오는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모자이크 장식의 길이나 광장 바닥 역시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것 중 하나다. 이것을 '칼싸다(Calçada)'라고 하는데, 석회석을 조각으로 잘라서 바닥을 장식하는 것. 보통 문자나 별·조개 등의 예쁜 모양을 넣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 하얀색 바탕에 푸른색 무늬가 들어간 타일인 아줄레주(Azulejo)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것.

* 마카오의 집이나 가게 앞에는 왜 향과 과일 등이 놓여 있을까?

도교적인 관습으로, 집이나 가게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쁜 것을 쫓아버리기 위해 하는 것. 빨간색 과일을 놓고 향을 피우며 기쁜 줄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부적을 태우기도 한다. 모두 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행위들이다.

* 사원 천장에 매달린 나선형의 향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향을 피우면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향이 피어오르기를 바라게 되었고, 따라서 오래 탈 수 있는 나선형의 향을 매다는 것이다. '만수향'이라고 부르는데, 향이 타는 도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를 맞으면 재수가 좋다는 설도 있다.

* 마카오가 매립지라고 하던데?

본래 마카오 반도는 현재 우리가 아는 크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던 곳이다. 아마 사원 앞이나 문테 요새 앞, 마카오 반도 중심개(N.A.P.E.) 지역, 그리고 타이파 섬과 콜로안 섬 사이에 있는 코타이 지구 등은 모두 바다였던 곳을 메워서 육지로 만든 것. 주강(珠江)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수심이 얇아 매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지금도 계속 매립 중이다.

* 마카오는 안전한 도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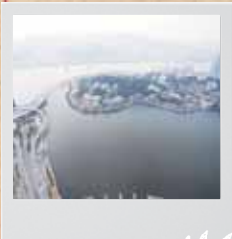
마카오는 인구 60만 명에 경찰이 5,000여 명에 이르는 곳. 어두운 밤이 되면 150~200m 간격으로 경찰들이 서 있다. 설사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2~3분이면 경찰들이 도착하는 안전한 도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고 외진 곳을 혼자 걸어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할 것!

* 마카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

마카오를 여행하다 보면 차길이나 골목들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좁다 보니 큰 승용차보다는 경차나 오토바이를 많이 선호하는 편. 그래서 곳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다. 물론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은 필수다.

* 마카오의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믿고 사도 될까?

마카오는 세관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 아무리 저렴한 식당이라도 6개 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간판이 있는 상점의 물건은 믿고 구입해도 무방하며 음식도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다.





A Tour of East Meets West

동서의 만남



01 | 해사 박물관 海事博物館 Museu Marítimo

대항해 시대를 기념하는 박물관. 포르투갈의 해양개척사를 중심으로, 중국 명나라 시대 정화의 해외 탐험 과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해양 세력의 각축장으로서의 마카오를 그리고 있는 부분은 꽤 인상적이다. 세계사에 관심이 많다면 흥미로운 전시물이 상당하다. 당시 대양을 누비던 배들의 모형도 눈여겨보자.

Get to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버스 10, 28B, A-MA Temple 정류장 하차, 도보 2분

Open 10:00~18:00(수~월) **Ticket** M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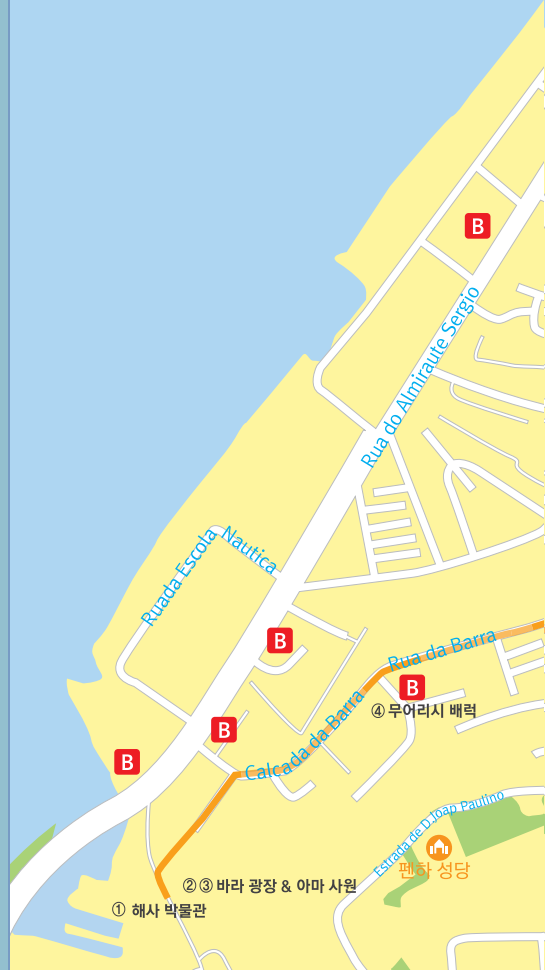


02 | 바라 광장 媽閣廟前地 Largo do Pagode da Barra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아마 사원 바로 앞에 자리잡은 광장. 아담한 공원을 연상케 하는 공원으로 벤치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살펴 보면 중국풍의 아마사원과 포르투갈풍의 물결무늬 바닥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광장 너머에는 잔잔한 물결이 이는 내항(內港)도 만날 수 있다.

Get to 아마 사원 바로 앞 광장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코스1 여행이 세나도 광장을 시작으로 큰길을 따라 길게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일정이었다면, 동서의 만남은 반도의 남동쪽 끝 마카오 해사박물관부터, 세나도 광장까지 골목을 관통하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코스다. 걷는 걸 좋아한다면, 코스 1의 마지막과 코스 3의 시작점을 이어, 거대한 반나절까지 도보 투어를 구성할 수도 있다.



ROUTE3 |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마카오 해사 박물관 - 바라 광장 - 아마 시원 - 무어리시 배력 - 릴라우 광장 - 만다린 하우스 - 요셉 신학교와 성당 - 돔 페드로 5세 극장 - 성 아우구스티네 성당 - 로버트 호 통 경의 도서관 - 자비의 성체(자애당) - 세나도 광장 - 성 도미니크 성당 - 로우 카우 맨션 - 대성당 & 대성당 광장





03 | 아마 사원 媽閣廟

Templo de A-Ma

마카오 최대규모의 도교 사원으로 풍랑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는 여신, 마조(媽祖)를 모시고 있다. 알려진 이야기의 하면 마카오에 최초로 상륙한 포르투갈 선원들이 현재 위치를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마꼭미우라는 사원 이름을 알려주면서 현재 마카오의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참고로 마조는 도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여신으로, 지역에 따라 툰하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원은 1488년에 건립됐는데, 현존하는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건립 당시에는 풍랑으로부터 어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뱃사람들만의 도시가 아닌 지금은 인간사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대상으로 격상된 상태다. 사원은 늘 매캐한 향냄새에 감싸져 있는데, 향 중에는 거대한 모기향을 연상케 하는 연향을 비롯해, 기동만한 크기의 향도 있어 처음 온 여행자들을 놀라게 한다. 사원은 꽤 넓으며, 산을 깎은 탓에 계단 길도 제법 많다. 어떤 전각에는 불교의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중화권에서 도교와 불교의 동거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마 사원 앞 광장은 늘 넘치는 인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거대함으로 인해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다. 나무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물결 무늬가 넘실대는 타일바닥과 정신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인파를 구경해보자.

Getto 마카오 해양 박물관 맞은 편 Open 07:00~18:00



04 | 무어리시 배럭 港務局大樓

Moorish Barracks

포르투갈령 인도였던 고아(Goa)지방의 용병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1874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카슈토(Cassuto)의 작품인데, 신고전주의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외관에 인도 아치를 가미해 미국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현재는 마카오 해상청 건물로 쓰이고 있어, 일반은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단, 테라스 쪽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이슬람풍의 독특한 외관을 눈여겨보고 싶다면 한번 찾아볼 만하다.

Get to 아마 사원에서 도보 5분

Open 테라스 09:00~18:00



05 | 릴라우 광장 亞婆井前地

Largo do Lilau

마카오를 점령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첫 번째 거주구역이다. 이곳이 거주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바로 광장에서 지금도 뿜어져 나오는 샘물 때문이다.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진입한 초기에는 짠물이 나오지 않는 샘물이 무척 귀했다. '릴라우'는 포르투갈어로 '산에서 솟는 온천'이라는 뜻이다. 현재도 릴라우 광장과 광장 주변의 아트막한 오르막에는 포르투갈풍 저택들이 즐비하다. 성 라자레스 성당 지구와 함께 마카오에서 가장 포르투갈 느낌이 물씬 풍기는 주거구역이기도 하다.

Get to 무어리시 배럭에서 도보 5분



06 | 만다린 하우스 鄭家大屋

Casa do Mandarim

로우카우 맨션과 함께, 마카오에서 가장 잘 보존된 단 두 개의 중국식 저택이다. 이 고택의 주인은 정관잉(鄭觀應)이라는 청 말기의 정치가다.

건물규모는 꽤 큰 편으로 12동, 60여 개의 방을 지니고 있다. 광둥저택의 교본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통 건축 양식에 충실하지만, 외벽의 미장 등 몇몇 부분은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동양적이지만 우리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만다린 하우스에서 옛 마카오인들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건축배경과 사용된 자재, 설계에 관련한 박물관 운영도 겸하고 있어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쉬어가기도 좋다. 또한 이 곳은 각종 공연 및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종종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카오정부관광청 소식지 왓츠온(What's On)을 참고하자

Get to 릴라우 광장 길 건너 왼편, 도보 1분

Open 10:00~18:00(목~화)



07 | 요셉 신학교와 성당 聖若瑟修院及聖堂
Igreja e Seminário de S. José

예수교 소속의 성당으로 1728년 건립되었다. 당시 예수회는 아시아 선교의 핵심 세력이었는데, 요셉 신학교는 바로 아시아로 파송되는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한 일종의 교육 기지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지로 파견된 18세기의 카톨릭 선교사들은 대부분 요셉 신학교 출신이라고 보면 된다. 마카오에서 유일한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웅장한 모습이 특징. 동방선교의 신이라 불리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Xavier)의 팔뚝이 안치된 탓에 카톨릭 순례자들에게도 꽤 중요한 곳이다. 성당과 달리 신학교는 요즘도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Get to 힐라우 광장에서 도보 5분
Open 10:00~17:00

08 | 돔 페드로 5세 극장 崗頂劇院
Teatro D. Pedro V

1860년에 지어진 아시아 최초의 서양식 극장. 건설 직후인 1861년 페드로 5세가 장티푸스로 숨지자, 그를 기리기 위해 페드로 5세 극장이라고 명명했다. 웅장한 이 오니아식 기둥이 마치 그리스 시대의 사원을 방불케 한다. 극장 내부에 있는 화려한 상들리에 또한 매우 아름답다. 현재는 축제 기간 등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Get to 요셉 성당에서 도보 5분
Open 10:00~18:00(수~월)

09

성 아우구스티노 광장&성당**崗頂前地&聖奧斯定教堂**

Igreja de Santo Agostinho&Largo de Santo Agostinho

1591년 건립된 성당으로 마카오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다. 초기에 건립된 마카오의 성당들은 몇 가지씩 이교도적인 건축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의 경우 성당 중앙의 대좌가 중국의 신주 모양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성당 건축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장인들의 미숙함에 대한 결과물로 알고 살펴 보면 상당히 재미있다. 성당 옆의 광장은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곳. 그래서 최근 이 곳을 중심으로 카페 등이 늘어나는 중이다.

Get to 돔 페드르 5세 극장에서 도보 1분**Open** 10:00~18:00

10

로버트 호 통 경의 도서관 何東圖書館大樓

Biblioteca Sir Robert Ho Tung

19세기 말, 마카오의 대부호 도나 캐롤리나 쿤아(Dona Carolina Cunha)의 대저택으로, 1918년 홍콩의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로버트 호 통에 의해 매입, 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1943년 일본이 홍콩을 점령하자 80의 노구를 이끌고 아예 마카오로 이주를 해버렸다. 1956년 로버트 호 통은 홍콩에서 사망했는데, 그는 유언에 따라 이 저택을 마카오 정부에 기증했다. 건물은 2년 후 공공 도서관으로 개조돼 일반에게 개방됐다. 현재까지도 로버트 호 통 경의 도서관은 마카오에서 가장 큰 공공 도서관이다.

Get to 성 아우구스티노 광장 옆**Open** 월~토10:00~19:00 일 11:00~19:00

11

자비의 성채(자애당) 仁慈堂大樓

Santa Casa da Misericórdia

1569년에 마카오의 첫 주교인 돈 벨키오르 까네이로(Dom Belchior Carneiro)가 자선 사업을 위해 설립한 곳. 세나도 광장에 있는 건물로 네오클래식 양식의 외관이 유독 눈에 띈다. 옆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선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애당에서의 자선 사업과 선교 활동은 기틀이 마카오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Get to 세나도 광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의 흰 건물 **Open** 10:00~13:00, 14:00~17:30(월~토)



12 | 세나도 광장 議事亭前地

Largo do Senado

마카오 제일의 랜드마크이자 최초의 퍼블릭 스퀘어. 그리고 마카오 여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다. 여행자들은 물결무늬 타일이 일렁이는 광장의 바닥에서, 분수대에 걸터앉아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좌우로 펼쳐진 민정청사, 중앙우체국, 자비의 성채를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다 보면 이 곳이 아시아의 한 지역이라는 느낌보다는 유럽의 어느 한 장면 같다는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분수대 한가운데 우뚝 설치된 조형물은 교황 자오선(Line of Demarcation)이다. 한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저 선을 중심으로 서쪽은 모두 스페인 땅, 동쪽은 모두 포르투갈 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포르투갈에 의한 마카오 지배 정당화의 표식이었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맨들맨들하게 닳고 있는 포르투갈 시대의 포장도로의 우뚝투뚝한 감촉을 느껴보자. 유럽풍의 건물 숲 사이에 서서 팔을 뻗어 숨을 내쉬어보자, 당신은 지금 마카오에 있다.

Get to 민정청사 맞은 편 광장

13

성 도미니크 성당 玫瑰堂

Igreja de S. Domingos

1587년에 세워진 마카오 최초의 성당이다. 건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웅장한 교회가 아닌 그저 예배를 볼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였다. 지금과 같은 밝은 미색의 화려한 바로크풍 건물로 거듭나게 된 것은 18세기 초의 일이다. 1834년 포르투갈 내전의 결과로 카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고 이 와중에 군대의 물류 창고로 전략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성당 내부 최고의 볼거리는 중앙 대좌다. 옥좌에 앉은 성모상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상, 포르투갈 왕가 문장으로 장식된 천장을 눈여겨보자. 성당 옆에 있는 박물관에는 카톨릭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Get to 세나도 광장 분수대를 뒤로하고 앞쪽으로 도보 2분 **Open** 성 도미니크 성당 10:00~18:00(월~일), 박물관 10:00~18:00(월~일)



14

로우 카우 맨션 盧家大屋

Casa de Lou Kau

1889년에 완공된 건물로, 중국 정원 로우임옥의 주인이 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부호인 카우의 저택이다. 전형적인 광둥식 벽돌건물로 청나라 말기에 유행하던 '시관' 스타일로 지어졌다. 한가운데 중정을 배치한 '마'자 건물인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몇몇 장식에 서양식 기법을 가미했다. 동서양이 기묘하게 혼재된 마카오 특유의 건축이라는 의미가 있다.

Get to 세나도 광장에서 성 도미니크 성당 쪽으로 가다가 성당을 지나면 오른쪽 골목으로 간다. 도보 2분 **Open** 10:00~18:00(월요일 휴관, 17:30까지 입장)



15

대성당 & 대성당 광장 大堂&大堂前地

Igreja da Sé&Largo da S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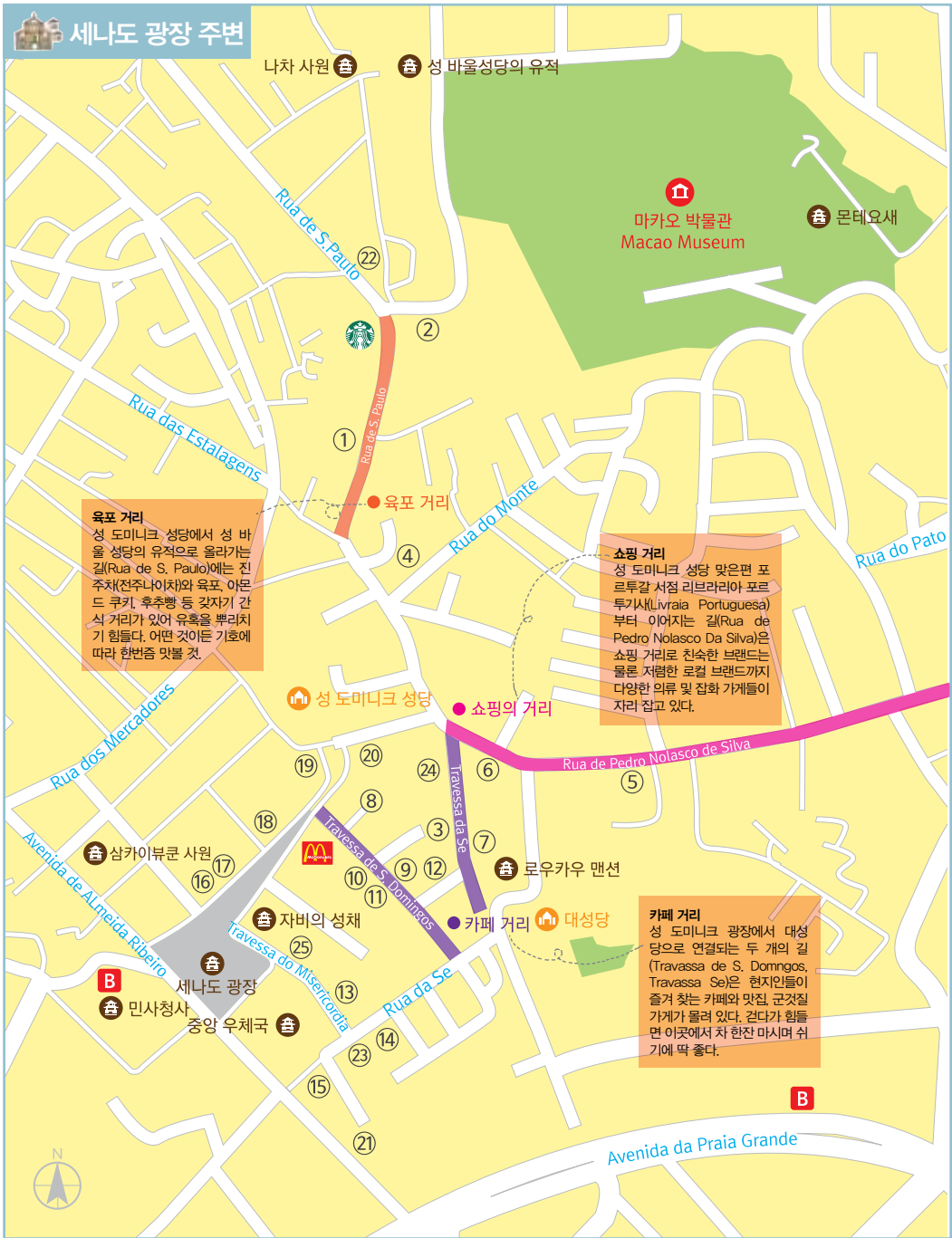
1622년에 지어진 마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중 하나다. 지금은 석조건물이지만 건립 당시에는 나무로 지어진 목조건물이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이 아시아 전역을 선교목표로 삼던 당시, 이 곳은 조선,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마카오 대교구의 본당이였다. 1650년 태풍에 의해 반파되었는데, 이후 복잡했던 포르투갈의 국내사정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1937년의 일이다. 매년 부활절에 열리는 페레이드는 마카오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다. 성당 앞에는 예쁘장한 분수가 있는 작은 광장이 있다. 성당 앞의 골목길 2개는 카페와 식당, 늦게까지 영업하는 어묵 가게 등으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Get to 세나도 광장에서 성 도미니크 성당 쪽으로 가다가 성당을 지나면 오른쪽 골목으로 간다. 로우 카우 맨션을 지나 언덕길을 오른다. 도보 5분 **Open** 07:30~18:30(월~일)





세나도 광장 주변



나차 사원

성 바울성당의 유적

마카오 박물관
Macao Museum

몬테요새

육포 거리

성 도미니크 성당에서 성 바울 성당의 유적으로 올라가는 길(Rua de S. Paulo)에는 진주채(전주나이차)와 육포, 아몬드 쿠키, 후추빵 등 갖가지 간식 거리가 있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어떤 것이든 기회에 따라 한번쯤 맛볼 것.

쇼핑 거리

성 도미니크 성당 맞은편 포르투갈 사점 리브라리아 포르투가사(Livraria Portuguesa)부터 이어지는 길(Rua de Pedro Nolasco Da Silva)은 쇼핑 거리로 친숙한 브랜드는 물론 저렴한 로컬 브랜드까지 다양한 의류 및 잡화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성 도미니크 성당

쇼핑의 거리

카페 거리

성 도미니크 광장에서 대성당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길(Traversa de S. Domingos, Traversa Se)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카페와 맛집, 군것질 가게가 몰려 있다. 걷다가 힘들면 이곳에서 차 한잔 마시며 쉬기에 딱 좋다.

삼카이뷰콘 사원

자비의 성채

세나도 광장

민사청사

중앙 우체국

로우카우 맨션

대성당

B





10 파스텔리아이 코이케이 鉅記手信
Pasteleria Koi Koi
초이형운(咄香園餅家, Pasteleria Choi Heong Yuen)과 함께 아몬드 쿠키와 육포로 유명한 곳. 길거리에 서 노란색 큼지막한 봉투를 든 여행객들의 심증팔구는 틀림없이 이곳에서 쇼핑을 했다.



07 레몬 셀로·밀크 탑
Lemon Cello - Milk Top
천연 아이스크림, 셔벗, 핫카이드도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3 가오케이빙 九記冰室
Sorvegél Café
70년 전통의 맛집으로 다양한 맛의 천연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한 아이스크림의 맛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둘러보자.



17 보시니 bossini
홍콩 캐주얼 의류 브랜드. 가격도 합리적이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기가 많다.

08 파스텔리아이 초이형운
咄香園餅家
Pasteleria Choi Heong Yuen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육포와 아몬드 쿠키로 유명하다. 마카오는 물론 홍콩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09 플라토 九如坊
Restaurant Platão
분위기 좋은 포르투갈 레스토랑.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서비스가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요리도 맛있지만 마카오에 최초로 세라두라를 소개한 집답게 포르투갈 전통 디저트인 세라두라가 특히 일품이다.

15 도라 탐 디자인
Dora Tam Design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도라 탐이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아티클 숍으로 소품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둘러보자.

20 사사 Sasa
유명 화장품 멀티숍 체인점.

14 이쑤우라이피쑤 義順牛奶公司
Leitaria I Son
차갑게 보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한 우유 푸딩과 계란 푸딩 등을 맛볼 수 있다.

11 후치아오뽕 胡椒餅
Wooschicken
대단식 후추빵을 파는 가게. 동그란 빵 안에 양념이 된 고기와 채소가 소로 들어가 있다. 맛있어서 인기가 꽤 많다.

06 카페 토스카나
Caffe Toscana
마카오에서는 카페라또 이름 붙은 가게에서 커피만 판다기보다 레스토랑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카페 토스카나 역시 이탈리아인이 운영하며 중부 이탈리아 가정 요리의 맛을 충실히 살려내어 인제나 인기 만점이다.

16 에스카다 葡國餐廳
Escada
노란색 3층 건물의 사랑스러운 매캐니즈 레스토랑.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브사이드인 줄하고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도 모두 맛있다.

22 허유산 許留山
Hui Lau Shan
홍콩의 과일 디저트 전문점. 드디어 마카오의 중심부에도 상륙했다. 인제나 별미인 망고 디저트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정답이다. 더욱이 뛰어난 안경.

04 타이싱쿵 茶涼公
Tai Sing Kung
무려 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찻집. 한 칸짜리의 아주 작은 규모지만 유명한 곳이다.

10 오문 카페 澳門咖啡
Oumun Café
마카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로 진한 맛의 커피가 특징이다.

18 관광안내소
Macau Business Tourism Center
지도와 여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와이파이 존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Open 09:00~18:00

23 대교당 커피 大教堂咖啡
Cathedral Cafe
핫 플레이스 중 하나로 그럴듯한 서양식 아침세트, 맛있는 피자 파스타를 비롯해 저녁에는 와인도 한잔 곁들일 수 있는 팔방미인이다. 길가에 앉아 거리풍경을 바라보는 맛도 훌륭하다.

05 덩펑링 타운 餃餃鎮
Dumpling Town
만두 전문점. 작은 가게지만 식사 때가 되면 항상 북바 줄 서기와 합석은 기본이다. 다양한 종류의 만두와 국수 등이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인기 최고!

11 나우카페 今時今日
Now Café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카페.

17 포트리스·왓슨
Fortress - Watson
각각 유명 전자제품, 약국.

24 향우 恒友
대표적인 사민응 주전부리 집. 매운 오망으로 대표되는 꼬치요리를 전문으로 취급한다. 비싸지만 않은데다 매콤한 편이라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03 리브라리아 포르투기사
Livraria Portuguesa
노란 건물 외관이 눈에 띄는 이곳은 포르투갈 서점이다. 포르투갈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곳으로, 책 대부분이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다. 화보집과 기념품으로 좋은 아이템이 많으므로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면 좋다.

12 맥팀 카페
MacTim Café
골목 안쪽까지 끈기 있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의외의 공간. 직접 조리하는 다양한 식사 메뉴와 디저트 메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동티모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오너 덕분에 회귀한 동티모르 커피를 맛볼 수 있다.

19 왕치케이 黃枝記
Wong Chi Kei
오리알을 넣고 대나무로 밀어서 만든 면 요리로 유명한 곳이다. 1946년에 문을 열어서 3대째 이어오는 곳으로, 홍콩에 분점까지 있다. 항상 손님들이 많아서 식사 시간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대표적인 메뉴는 새우 월탕면(MOP23)으로, 쫄쫄쫄쫄한 면발과 깊은 맛의 국물이 정말 맛있다. 보통 면 요리는 MOP20~ , 밥류는 MOP30~선.

25 호놀룰루 카페 檀香山
Honolulu Cafe
마카오 구 시가에서는 꽤 유명한 집으로 무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차찬탕과 레스토랑의 중간쯤 되는 위치다. 포르투갈식 치킨이 유명하고, 커피 셀렉션은 5대양 6대주를 망라할 만큼 다양하다.





A Tour of Arts and Culture

예술과 문화 코스



ROUTE 4 |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마카오 문화센터 - 마카오 예술 박물관 - 마카오 반환기념 박물관 - 마카오 과학센터 - 관음상 - 마카오 타워



마카오의 현재를 엿볼 수 있는 코스다. 예술과 문화코스의 모든 구간은 매립지도 과거에는 바닷물이 칠랑대던 곳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땅에 마카오 사람들은 그들의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현대적 기념비들을 집중 배치했다. 일종의 계획도시에 가까운 지역이라 그간의 구불구불한 골목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01 | 마카오 문화센터 澳門文化中心

Centro Cultural de Macau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에 비견되는 곳으로 마카오에서 가장 큰 상설 공연장이다. 마카오 반환이 이루어지던 해인 1999년 개관했다. 총면적 45,000㎡, 5개 층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수 있는 대공연장(Grand Auditorium)을 비롯해 아트 플라자, 컨퍼런스 룸, 댄스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하는 기간 벌어지는 각종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et to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버스 3a, 12, Sands or Macau Culture Centre 하차 **Open** 10:00~19:00(화~일) **Web** www.ccm.gov.mo



02 | 마카오 예술 박물관 澳門藝術博物館

Museu de Arte de Macau

마카오 문화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속건물이자, 마카오 유일의 예술 전문 박물관이다. 상설전시실 3곳과 특별 전시실 2곳 등 총 5개의 전시실이 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2개의 전시실이 추가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총 전시실은 7곳이다. 상설 전시실의 핵심은 역시 중국. 4층의 중국 서예관과 중국 도자관에서는 중국 문화의 깊은 향기를 체험할 수 있다. 특별 전시실의 경우 대부분 현대 미술이 그 주인공. 그런 점에서 마카오 예술 박물관은 마카오, 나아가 중국의 신규 문화예술이 만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Get to 마카오 문화센터 부속건물이다
Open 10:00~19:00(화~일) **Ticket** MOP5



03 | 마카오 반환기념 박물관 澳門回歸賀禮陳列館

Museu das Ofertas sobre a Transferência de Soberania de Macau

1999년 중국 전역은 흥분에 휩싸였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오랜 기간 외세에 의해 시달렸던 중국의 마지막 피식민지 마카오가 다시 중국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쟁의 참상 없이 협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당시 중국의 각 성(省)은 정성껏 복귀기념 기념품을 준비했다. 마카오 반환기념 박물관은 이 시기 중국의 각 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티베트는 카펫, 간쑤성은 둔황이 속한 도시답게 천녀상을 금으로 조각해 선물했다.

Get to 마카오 문화센터 옆 건물
Open 10:00~19:00(화~일)



04 | 마카오 과학센터 澳門科學館

Centro de Ciência de Macau

모더니즘의 마지막 건축가로 손꼽히는 이오 밉 페이 (Ioh Ming Pei)의 작품으로, 원뿔형의 외관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건물은 크게 두 동으로 전시관과 천문대로 나뉘져 있다. 전시관은 14개의 전시실과 450개의 작동 가능한 과학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내용들이 많다. 천문대의 15m짜리 돔은 6,400만 화소를 자랑하는 3D 파노라마 극장으로 현존하는 세계 10대 규모의 파노라마 스크린을 자랑한다.

Get to 마카오 문화센터 길 건너편에 마카오 과학센터 건물이 보인다. 육교를 통해 큰 길을 건널 수 있다

Open 10:00~18:00(수~일, 휴무:음력 설 당일)



05 | 관음상 觀音蓮花苑

Estátua de Kun lam

1999년에 세워진 조각상으로 최근 실내 공간을 강조하여, 쿤람 세계교회센터 Centro Ecuménico Kunlam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마카오의 중국 반환을 축하하는 의미로 포르투갈 정부가 제작해 선물 한 것이다. 높이가 20m에 이르는데, 포르투갈이 주요 종교인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닮은 관음 보살상으로 문화와 종교간 화합을 의미한다. 연꽃모양의 대좌 안에는 자그마한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유, 불, 선 등 동양종교의 위대한 인물을 그린 벽화가 인상적이다.

Get to 마카오 과학센터에서 도보 6~8분

Open 10:00~18:00(토~목, 전시실)



06 | 마카오 타워 澳門旅遊塔會展娛樂中心

Torre de Mac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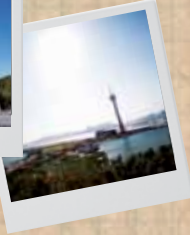
2001년 문을 연 21세기 마카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높이가 338m에 달한다. 타워는 여행자들에게 관광 전망대, 스릴만점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하다. 특히 233M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번지점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 중 하나다. 이 외에도 번지점프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스카이점프, 마카오 타워의 데크를 걸을 수 있는 스카이워크, 마지막으로 338M 탑의 최상부까지 올라 갈 수 있는 마스트클라이밍이 있다. 타워의 저층에는 쇼핑센터와 레스토랑도 있으니 한번에 관광과 액티비티, 식사와 쇼핑까지 끝낼 수 있는 셈. 지하의 영화관은 마카오 젊은이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 중 하나.

Get to 관음상에서 택시 Mop15~20 **Open** 10:00~21:00 (월~금), 09:00~21:00(토, 일, 공휴일) **Open** 마스트클라이밍 MOP1,888, 번지점프 MOP2,688, 스카이점프 MOP1,888

마카오를 두 눈에 담다



마카오 전망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 3곳.
바로 펜하 성당, 몬테 요새, 기아 요새다. 이 곳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과 화려한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펜하 성당 主敎山小堂 Ermida de Nª Srª da Penha

펜하 언덕에 우뚝 선 아름다운 성당으로 1622년 건설됐다. 로만 카톨릭의 아마 사원 같은 곳으로, 먼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을 담은 성당이다. 전망으로만 따진다면 기아 요새보다 펜하 성당이 한 수 위다. 참고로, 이 일대는 마카오의 비버리 힐스 같은, 최고의 부촌이다. 성당으로 오르는 도중 쉽게 보기 힘든 최고급 수입 자동차들이 즐비한 것도 그 때문. 심지어 행정장관 관저도 내려다 볼 수 있으니 마카오에서 이만한 명당은 없는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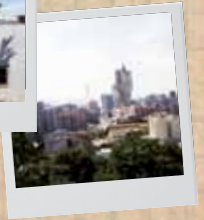
Get to 아마 사원에서는 도보로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무더운 철이라면 택시를 권하고 싶다.



몬테 요새 大炮台 Fortaleza do Monte

22문의 대포를 장치한 요새다. 1626년에 건설했는데, 특이하게도 예수회 선교사들이 지었다고, 사실 이 건물은 당시 중국정부로부터 거주권만을 받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일종의 계약위반이었다. 게다가 19문의 대포를 중국 대륙을 향했다고 하니, 이 때 이미 마카오 땅의 강제 점령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1965년까지 군사 기지로 사용되다 이후 마카오 기상청으로도 사용됐는데, 그 기상청마저 현재는 콜로안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해발 52M에 불과한 낮은 높이지만, 마카오 지리상 사방이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Get to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을 바라보고 싶을 때 오른편 **Open** 요새 및 정원. 07:00~19:00(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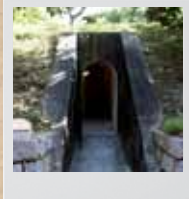
기아 요새 東望洋炮台 Fortaleza da Guia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군사요새로, 마카오 점령 초기인 1622~1638년 사이 포르투갈에 의해 건설됐다. 요새라곤 하지만 눈에 띄는 건물은 등대와 자그마한 성당뿐인데, 등대는 마카오 최초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현재에도 등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3명의 관리인이 상주하며 태풍 안내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해발 90M에 불과한 언덕이지만, 여기서 바라보이는 마카오의 전경이 인상적이라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잦다. 성당은 내부가 공개된다. 1996년 성당 복원과정에서 회벽 안쪽에 벽화가 발견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실내에서 벽화도 감상할 수 있다.

Get to 버스 28C, H1, Jardim M, Flora 하차, 케이블카 이용, 이후 도보 15분 **Open** 요새 09:00~17:30, 성당 10:00~17:00

기아 요새의 땅굴 松山軍用隧道 Galerias Subterraneas do Monte da Guia

영문명은 Guia Hill Military Tunnels. 1930년대에 조성한 포르투갈 군의 군용 터널로 당시 중국 내 민족주의가 발흥하자,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했다. 2열 종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땅굴로 내부에는 참호, 무기고 등 장기간 전투를 대비한 핵심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아직 일반 공개 초기라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구간도 짧다. 앞으로 공개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Get to** 땅굴은 두 개가 있다. 케이블카에서 기아요새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 짧은 터널(이 터널), 산 아래쪽에 있는 길이 207m의 긴 터널(B터널)이 있다. **Open** A터널 10:00~17:00(화~일), B터널 15:00~17:00(토~일)



PART
3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매력적인 도시

타이파 빌리지, 코타이 스트립, 콜로안 빌리지





Taipa Village

타이파 빌리지

사람이든 도시든 곱게 늙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피어내는 시절의 화려함이나 누군들 아름답지 않으나, 1851년 청나라 소속이었던 타이파 섬은 포르투갈 군에 의해 무력으로 점령당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일대를 마카오 반도의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한 별장지로 선택했고, 이때부터 포르투갈풍이 물씬 풍기는 타이파 빌리지가 조성됐다. 남국의 바다, 풍부한 숲 속에 생겨난 밝은 미색의 지중해풍의 건물은 오늘날에도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타이파 빌리지의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재미는 어린 시절 동네 뒷골목을 헤맬 때의 딱 그 느낌이다. 외관을 새로 칠하지 않은 건물에서 얼핏 보이는 세월의 흔적은 고운 주름살 같다. 아니 누군가는 그걸 노스탤지어라고 표현할지도 모른다.

Get to |

세나도 광장에서 26A 버스를 타면 한번에 타이파까지 온다. 정류장 이름은 望德聖母灣馬路/紅樹林 Estrada da Baia N,S Esperanca/Mangalहा차. 마카오국제공항이나 페리 터미널에서는 갤럭시 Galaxy행 셔틀버스를 타고 갤럭시까지 간 후, 갤럭시에서 타이파 빌리지 행 Old Taipa Village행 셔틀 버스를 타자. 21:00까지 운행한다.



01 | 타이파 주택박물관 龍環葡韻住宅式博物館

Casa Museu da Taipa

1921년에 지어진 포르투갈풍의 저택이다. 타이파와 콜로안에 있는 포르투갈풍 저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5개 동의 건물이 각각의 주제를 가진 전시관으로 활용, 개방되고 있다. 포르투갈풍의 감성이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드문드문 중국풍의 소품들도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박물관 부지에서 오르편으로 연결된 공원을 거쳐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손쉽게 베네시안 마카오까지 연결되어 더욱 오가기가 쉬워졌다.

Get to 쿤하 거리 맨 끝으로 가면 계단길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왼쪽으로 쪽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성당이 보이고 내리막 길이 있다. 바로 그 곳.

Open 10:00~18:00 (17:30까지 입장, 월요일 휴무)

Ticket 어른 MOP5 학생 MOP2 (일요일 무료)



02 | 카르멜 성모 성당 嘉模聖母教

Igreja de Nossa Senhora do Carmo

마카오 주택박물관을 굽어보고 있는 예쁜장한 성당으로 타이파 교구의 본당 격이다. 지금이야 매립/간척 작업으로 인해 타이파가 섬이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20세기 초반해도 성당 앞, 그러니까 베네시안이 있던 자리만해도 파도가 출렁거리리는 바다였다. 즉 타이파의 교통이 열악하던 시절, 이 섬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성당인 셈이고 별도의 교구 지위를 받았다. 밤에는 조명을 켜는데, 주변풍경과 어우러져 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Get to 타이파 주택 박물관에서 도보 3분

Open 평일미사 18:30 (수~월, 영어) 주일미사 10:00 (영어)



03 | 타이파 · 콜로안 역사박물관 路氹歷史館

Museu da Historia da Taipa e Coloane

타이파와 콜로안 행정구청으로 쓰이던 건물을 개조한 박물관. 마카오 반도와는 다른 역사를 품고 있는 타이파, 콜로안 지역의 문화, 종교,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행정구청이 생기기 전, 이 자리는 폭죽 공장이었다고 하는데,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해당 부분을 재발굴해 독립적인 볼거리로 소개하고 있다. 폭죽 제작과정을 미니어처로도 만들어놨는데, 꽤 흥미로운 대목이다. 현재까지도 폭죽은 중화권 국가들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액운을 쫓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음력 설 무렵에 귀청이 떨어지나갈 듯한 폭죽 소리를 직접 보고 듣고 이 곳을 찾았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Get to 쿤하 거리에서 도보 8분

Open 10:00~18:00 (17:30까지 입장, 월요일 휴무)

Ticket 어른 MOP5 학생 MOP2 (일요일 무료)





타이파 빌리지



04 | 쿤하 거리 官地街 Rua do Cunha

100m가량의 작은 골목이지만, 타이파 관광에서 쿤하 거리를 빼 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육포 골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육포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예쁘게 치장한 플래그십 베이커리와 커피숍, 그리고 로컬 간식집과 레스토랑이 가득한 먹을 거리로 고향으로 탈바꿈했다.

Get to 갤럭시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타이파 빌리지에 내렸다면 바로 쿤하 거리 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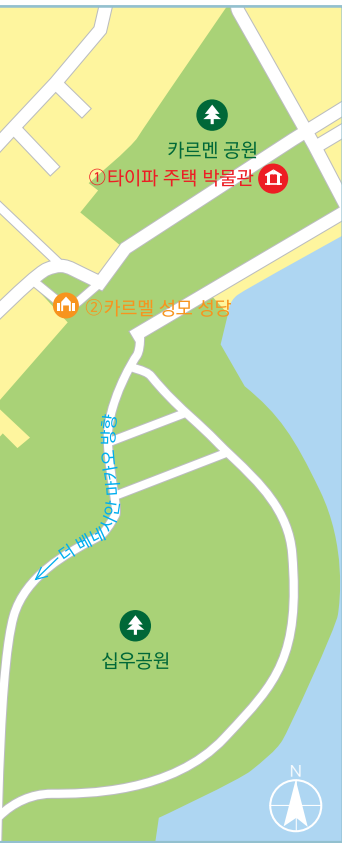


05 | 까코헤이아 시우바 거리 施督憲正街 Rua Correia da Silva

쿤하 거리끝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점은 전체의 3/1 정도의 지점. 쿤하 거리를 등지고 오른쪽으로는 타이파 콜로안 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지며 왼쪽으로는 카페와 식당, 사원 등을 거쳐 타이파 아파트촌까지 연결된다.

Get to 25, 25X, 26, 26A, 35, MT1, MT3 버스를 타고 Avenida Olimpica 奥林匹克大馬路에서 하차. 왔던 방향으로 조금만 되돌아 가서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꺾어지면 거기서부터다.





① 타이파 주택 박물관

② 카르멜 성모 성당

삼우공원

10 도라 탐 디자인

Dora Tam Design
8년째 마카오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홍콩 출신의 주얼리 디자이너인 도라 탐의 디자인 스타일. 주얼리 외에도 개성이 특출 튀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구경만 해도 흥미로운 것이다. 세로나도 광장 지역에서도 디자이너 도라 탐의 숨을 볼 수 있다.

11 홍유엣차점 紅月茶莊

Hong Yuet Tea
고전적인 중국 전통 다기가 구비되어 있는데다 보이차·재스민차·녹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직접 시음해보고 구입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다. 부모님이나 손윗사람들을 위한 여행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12 팻시우라우 3 佛笑樓 3

Fat Siu Lau 3
마카오의 유명 포르투갈-매캐니즈 레스토랑.



13 세라두라 沙度娜

Serradura
시원하고 달콤한 포르투갈의 디저트인 세라두라를 파는 곳. 그 외에도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다.

14 산호우레이 新好利咕餅餅店

San Hou Lei
마카오 예그타르트의 명가 중 하나. 마카오 토박이 노인들에게는 이 집의 인기가 더 높다. 맛이 아주 진한 편이라 호불호는 엇갈릴 수 있다. 제비집 타르트가 최고 인기메뉴다.

15 파스텔리아 초이형운

咀香園餅家 Pastelaria Choi Heong Yuen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카오 제일의 로컬 베이커리 Choi Heong Yuen의 플래그십 스토어.

16 덤보 레스토랑 小飛象葡國餐廳

The Dumbo Restaurant
유명한 대형 포르투갈 레스토랑. 디즈니의 주인공인 아기 코끼리 덤보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홍콩의 유명한 배우들이 단골이다. 1층에는 디저트와 와인 등을 파는 숍이 있고, 2층은 식당이다.

17 봄베이로스 광장 消防局前地

Bombeiros
쿤하 거리 끝자락에 위치한 일호 버룩시장이 열리는 작은 광장이다. 이곳의 일호 버룩시장은 작고 귀여운 아이템들이 출몰하는 시장으로 홍콩에서도 유명하다.



18 코지나 피노키오 木偶葡國餐廳

Cozinha Pinocchio
1977년에 문을 연 큰 규모의 포르투갈 레스토랑. 마카오 사람들의 단란한 저녁 식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9 파스텔리아 코이케이

鉅記手信 Pastelaria Koi Kei
맛있는 강정과 아몬드 쿠키, 그리고 육포를 살 수 있는 곳.

20 목이케이 젤라티나

莫義記大蛋糕榴蓮雪糕 Gelatina Mok Yi Kei
포르투갈 디저트인 세라두라와 두리안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디저트 전문점이다. 언론 매체에도 자주 소개되는 곳이니 이곳의 디저트를 꼭 한번 맛볼 것. 1개 MOP15~.

21 갈로 公驛 Galo

먹자골목인 쿤하 거리 초입에 위치한 포르투갈 레스토랑. 수탉이 그려진 간판이 눈에 띄는 곳.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22 타이레이오케이

大利來記咖啡室 Cafe Tai Lei Loi Kei
이곳의 대표 메뉴는 돼지고기를 빵 사이에 끼운 간식거리, 주빠오(豬扒包, Ju Pa Bau, MOP30). 직접 구워낸 빵에 양념이 된 돼지고기를 끼워서 먹는데,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양도 푸짐하고 맛도 있다. 주빠오는 오후 2시부터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 하니 조금 서두를 것.



23 올드 타이파 태번

Old Taipa Tavern
팍타이 사원 근처에 있는 펍(Pub)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다.

24 안토니오 레스토랑 安東尼奧

António Restaurant
마카오 유명 레스토랑 안토니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타이파 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포르투갈 음식 전문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2009년과 2010년 미슐랭 2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맛은편에 새롭게 오픈한 안토니오 델리아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25 풍다 커피

鐘大咖啡 Fong Da Coffee
타이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커피 체인점으로 약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집이다. 자그마한 광장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는데, 커피 내공이 상당하다.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 광장의 벤치에서 즐겨먹기 좋다.

26 카사 드 타파스

塔巴斯西班牙小館 Casa de Tapas
타이파 빌리지 유일의 스페인 레스토랑. 1층은 타파스 바, 2층은 레스토랑 분위기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갈한 요리로 외국인들 위주로 점차 입문문을 내고 있다. 옥상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테라스로 쓰이는데, 야간에는 인기민점.





Cotai Strip

코타이 스트립

1990년만 해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던 곳이었다. 타이파 섬과 콜로안 섬 사이의 바다를 메우자는 계획은 무모해 보였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걸 가능하게 했다. 파도는 대지가 되었다. 코타이 스트립은 순전히 인간의 힘으로 만든, 21세기의 금자탑이자, 오늘날 마카오의 가장 빛나는 곳이다. 마카오 반도, 타이파, 콜로안과 다른 느낌의 마카오를 경험할 수 있다.

Get to |

마카오로 들어가는 다섯 곳의 관문, 즉 국제 공항과 두 개의 페리 터미널에서 베네시안 (Venetian), 시티 오브 드림(City of Dream), 갤럭시 (Galaxy), 코타이 센트럴 (Cotai Central)로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위의 네 곳이 현재로서는 코타이 스트립의 전부가 가깝다.

코타이 스트립 이해하기 베네시안(Venetian), 시티 오브 드림(City of Dreams), 갤럭시(Galaxy), 코타이 센트럴(Cotai Central)은 하나의 거대한 블록이다. 각각 이름이 붙은 구역마다, 1~3개의 호텔과 쇼핑센터, 카지노, 레스토랑과 바가 붙어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연상하면 된다. 그 안에 쇼핑몰, 백화점, 호텔, 놀이동산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역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시티 오브 드림의 경우, 쇼핑센터, 카지노, 공연장과 함께, 크라운, 하드 락, 하얏트 호텔 등 3개의 호텔이 있다.



01

베네시안 威尼斯人

The Venetian Macao-Resort-Hotel

코타이 스트리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블록,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한국에서 처음 접하는 마카오의 화려함으로, 지금도 코타이 스트리프의 대표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베네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다. 마치 중세 유럽의 어느 성당을 온 것 같은 높은 천장,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운 성화에 우선 매료된다. 쇼핑물 구역은 파란 인공 하늘과 산 마르코 광장, 운하와 작은 다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산타 루치아를 부르는 곤돌라가 노를 젓는, 그야말로 인공의 베네치아를 구현해냈다.

Web www.venetianmacao.com



02

시티 오브 드림즈 新濠天地

City of Dreams

영화 '도둑들'의 무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베네시안이 중세풍이라면 맞은편의 시티 오브 드림즈는 근 미래의 느낌. 여기에 마카오 최고의 쇼로 등극한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The House of Dancing Water)' 덕에 최근 높은 주가를 톡톡히 과시하는 중이다. 이 곳은 세 개의 호텔이 모여 있는데, 크라운 호텔(Crown Hotel), 하드 락 호텔(Hard Rock Hotel), 그랜드 하얏트 마카오(Grand Hyatt Macau)다. 쇼핑물은 규모가 작은 편인데, 대신 실제크기의 베트남과 수퍼맨 모형이 있는 DC 코믹스 슈퍼 히어로(DC Comics Super Heroes)나 라이카(Leica) 카메라 매장 등 마카오에서 보기 힘든 몇몇 독점 매장들이 눈에 띈다.

Web www.cityofdreams.com.mo



03

갤럭시 마카오 澳門銀河

Galaxy Macau

'World Class, Asian Heart'라는 모토 아래 2011년 개관했다. 성채를 연상시키는 육중한 외관에 동양적 장식을 더해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크리스털을 활용한 인테리어는 코타이 스트리프를 관통하는 물의 이미지를 잘 묘사했다는 평이다. 아직 입소문이 덜 난 탓에 상대적으로 한적하다. 일본계의 오클라 호텔(Okura Hotel)을 비롯해 갤럭시 호텔(Galaxy Hotel), 그리고 도심형 리조트를 지향하는 반얀트리 리조트(Banyan Tree Resort)가 입점해 있다. 앞의 두 곳과 달리 초대형 공연 이벤트 공간이 없는 대신, 세계 최대규모의 인공 파도 풀장을 갖춘 워터파크가 있어 가족 여행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Web www.galaxymacau.com



04

샌즈 코타이 센트럴 金沙城中心

Sands Cotai Central

2013년 오픈 한 구역으로 현재 코타이 스트리프 내에서는 가장 반짝반짝하다. 쇼핑물을 밀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 특징.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잡아 끄는 건 무성한 나무들, 물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면 어느새 폭포가 물을 뿜어내고 있다. 그 중 3층에 위치한 키즈카번은 초대형 아동용품점으로 장난감, 의류, 잡화, 먹거리 까지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베네시안과 같은 그룹이라 베네시안의 쇼핑물인 그랜드 캐널 슝까지 구름다리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두 곳을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미국계인 콘라드 호텔(Conrad Hotel)을 비롯해 셰라톤(Sheraton Hotel), 홀리데이 인(Holiday Inn)이 자리잡고 있다.

Web www.Sandscotaicentral.com





코타이에서 맛에 취하다



㉞ 다이너스티 8 朝 Dynasty 8

콘라드 호텔 부설 중식 레스토랑으로 정통 광둥식을 표방한다. 메인 셰프는 싱가포르의 크리스탈 제이드 수석주방장 출신인데, 이 덕에 아주 대중적인 기호에 맞는 요리를 선보인다. 상화가 다이너스티 8인 이유는 식단에 있는 8개의 별실 때문이다. 각각의 별실은 중국의 주요 왕조 이름에서 가져왔으며, 인테리어까지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예를 들어 송(宋)이라는 별실을 들어가면, 송 휘종의 새 그림이 벽면을 장식하고, 식기도 당시 유행하던 자기를 사용한다. 후기인 청(淸) 별실로 들어가면 식기는 모두 당시에 유행하던 채색자기다.





06 신선 Xin

쓰촨식 회귀(회팟) 뷔페점이다. 필필 끓는 다양한 육수에 야채, 육류, 해산물을 넣고 데쳐 먹는다. 불같이 매운 홍탕이 기본이지만, 입맛에 따라 백탕이나 토마토탕 같은 육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름진 음식이 더 이상 당기지 않는대거나 화끈한 매운맛을 원한다면 생각해보자. 탕은 도중에 다른 종류로 교체 가능하다.



07 베네 班妮 Bene

센트 코타이 센트럴 안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엄마가 만든 홈 쿠킹을 모토로 하는 곳인데, 그에 어울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다. 커다란 치즈를 굽어낸 후, 그 안에 파스타를 넣고 비벼주는 Spaghetti alla Carbonara e castelmagno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다. 와인셀러도 상당히 특실한 구성을 자랑한다.



08 베이징 키친 满堂彩 Beijing Kitchen

홍콩까지 포함해 가장 맛있는 베이징 덕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 정통의 방식 그대로, 과일 나무 장작을 때서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굽는다. 베이징 정통의 방법은 오리의 껍질만 따로 달라 한 접시를 만들고 살코기를 따로 내주는데, 마카오-홍콩의 레스토랑 중 이 정통 방식을 유일하게 고수하고 있다. 눈과 입이 즐거운 이곳에서의 식사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평.



09 지얏헨 紫逸軒 Zhi Yat Heen

마카오 반도의 8과 함께 마카오 최고의 광둥요리 레스토랑. 공히 미술관 투스타 레스토랑으로 호시가지들에게는 늘 비교의 대상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80이 세프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빚어내는 창작 요리의 힘이 더 강한 편이라면, Zhi Yat Heen의 장점은 정갈함이다. 대부분의 중국요리가 간이 강한 편인데 비해 Zhi Yat Heen은 신선한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간을 제한하는 편에 속한다. 계절별로 메뉴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추천 요리를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코타이 스트립에서 쇼핑하기 좋은



10 그랜드 캐널 샵스 大运河购物中心 Grand Canal Shoppes
더 베네시안 마카오의 쇼핑 아케이드로, 주로 자라(Zara)나 나인 웨스트(Nine West) 등 중저가 브랜드가 많은 편.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념품 공식 매장인 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익스피어리언스(The Manchester United Experience)도 인기 스포 중 하나다.



11 더 시즌즈 샵 시즌즈 四季名店 The Shoppes at Four Seasons
포시즌즈 호텔 마카오의 쇼핑 아케이드로, 명품과 디자인 브랜드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DFS 뷰티 월드(DFS Beauty World)에는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단독 프르모션 등 이벤트도 다양해서 쇼핑하기에 편하다



12 더 볼르바드 新濠大道 The Boulevard

시티 오브 드림즈의 쇼핑 아케이드. 숨이 많지 않지만 대신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 by Marc Jacobs) · 랄프 로렌(Ralph Lauren) ·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 인기 많은 브랜드들을 볼 수 있다. 롤렉스(Rollex)를 비롯해 쇼파드(Chopard) · 태그호이어(Tag Heuer) 등 세계 브랜드가 많은 것도 특징.



13 샵스 앤트 시즌즈 코타이 센트럴 金沙广场

Shoppes at Sands Cotai Central

센트 코타이 센트럴에 위치한 쇼핑 아케이드로 1~2층에는 다양한 명품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3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커비안 입점,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계단식 폭포, 인공 비류와 식물들로 꾸며진 인터리어가 쇼핑의 즐거움을 더한다.



Coloane Village

콜로안 빌리지

저 멀리서 해풍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 마카오의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도시의 번잡함도, 넘쳐나는 인파도 이 곳에는 없다. 해변을 따라 정연하게 설치된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거나, 엮어지면 코 닿을 만한 크기의 작은 마을 골목을 헤집고 다녀도 길 잃어 버릴 염려가 전혀 없다. 마을 안에는 꽤 그럴듯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빛나는 햇살 속 성당 첨탑 위의 십자가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포르투갈풍 살림집 지붕 위에서는 고양이들이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셋노란 에그 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물고 탐험을 떠나보자.

Get to |

세나도 광장에서 버스 21A, 26A, 路環市區-1 Vila de Coloane-1 하차



01 |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路環聖方濟名聖堂
Igreja de S. Francisco Xavier

아시아 선교에 일생을 바친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를 기념하는 성당으로 콜로안 빌리지 한 가운데 있다. 성당 앞에는 작은 광과 노천 식당이 자리잡고 있어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예배당 옆 벽실에는 종교화가 걸려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점으로, 도교의 선녀처럼 묘사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림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다.

Get to 콜로안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5분
Open 영어 시전 미사 : 17:30



02 | 시월초오마로 十五月初五馬路
Avenida de Cinco de Outubro

콜로안의 해안도로, 방파제 위로 포르투갈풍 타일이 깔린 보행로가 있고, 그 옆으로 가로수가 있는 예쁜장한 길이다. 일찌감치 마카오를 한국인들에게 알렸던 드라마 '궁'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 벤치가 서향이라 저 멀리 중국 주하이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Get to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앞 수변 산책로



03 | 나베간치 거리 船人街
Rua dos Navegantes

나베간치 거리는 콜로안에서도 서민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거리다. 조금 더 중국적인 분위기로, 길을 걷다 보면 커다란 가로수 아래 모셔둔 자그마한 식당들도 볼 수 있다. 선착장 주변으로 건어물 가게들이 성업 중이라 어촌의 느낌도 든다.

Get to 콜로안 버스 스톱에서 내린 후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직진 후 삼거리에서 오른쪽 거리



로드 스토우즈 삼총사 安德魯

마카오의 명물인 에그타르트의 고향이 바로 이 곳. 허름한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지금은 2개의 카페가 성업 중이다.

04 | 로드 스토우즈 가든 카페 Lord Stow's Garden Café x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카페. 정원과 좌석이 여유 있게 갖춰져 있어 쉬어 가기 좋다.

Get to 버스 정류장 바로 옆 **Open** 10:30~19:00



05 |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Lord Stow's Bakery
마카오에서 에그 타르트를 최고로 손꼽는 곳. 드라마의 '궁'의 주인공인 주지훈과 윤은혜가 에그 타르트를 나누어 먹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바로 그곳이다.

Get to 버스 정류장 맞은편 **Open** 07:00~22:00(엄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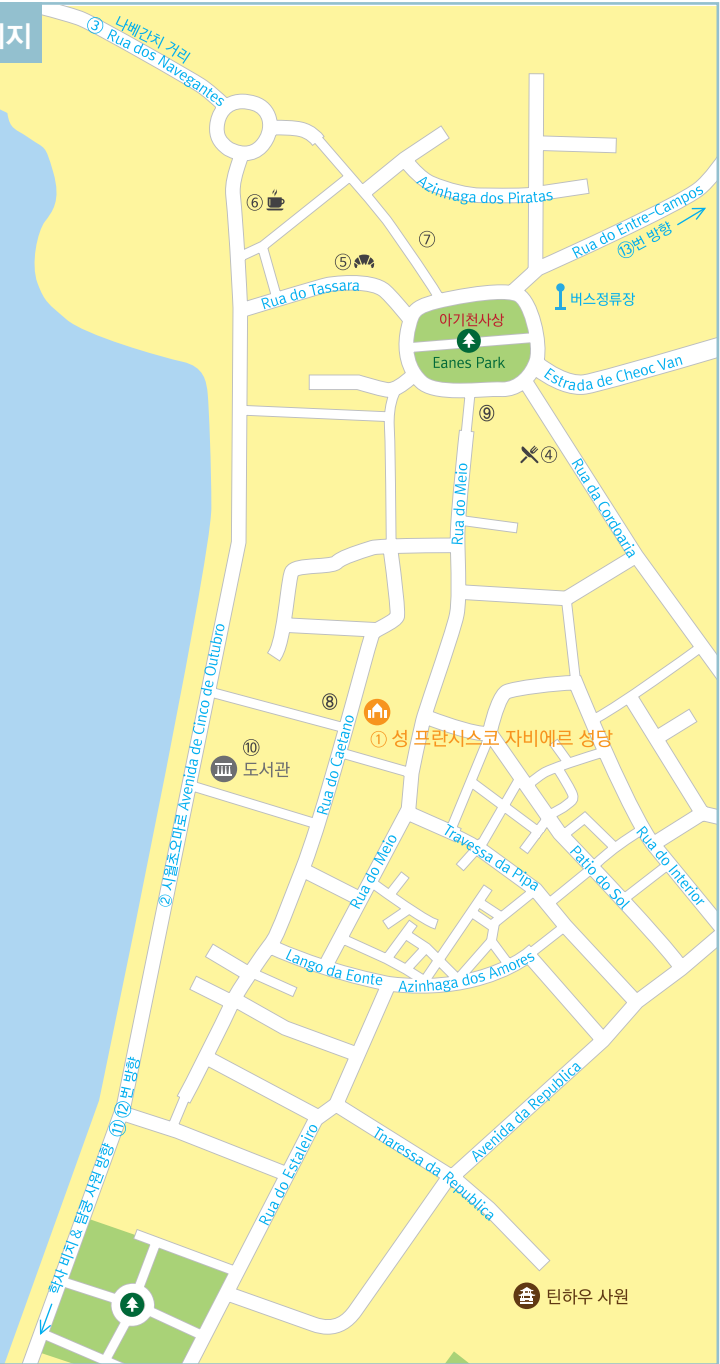
06 | 로드 스토우즈 카페 Lord Stow's Café
로드 스토우즈 가든 카페보다 넓지는 않지만 콜로안의 낭만이 엿보이는 곳이다.

Get to 베이커리에서 직진 후 삼거리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도보 2분 **Open** 09:00~18:00





콜로안 빌리지





07 에스파소 리스보아 里斯本地帶餐廳

Espaço Lisboa

콜로안에서 유명한 포르투갈 레스토랑. 아담하고 작은 규모지만 음식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 드라마 '궁'의 두 주인공이 저녁 식사를 하던 장소로 등장했다. 쾌활한 서버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인상적인 곳. 진화 면서도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 커피도 맛있다.



08 응아팀 카페 雅戀花園餐廳

Nga Tim Café

성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카페 겸 해산물 전문 식당. 걸로 보기에 허름하지만 음식 맛이 좋아서 식사 때면 손님들로 가득 찬다. 대표적인 메뉴는 신선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 어떤 것을 시켜도 맛있으니 걱정 말고 주문할 것. 오징어튀김, 구운 달고기 등이 강추 메뉴. 한국 영화 '도둑들'에 나온 탓에 최근에는 인기가 높다.

09 카페 체리 常喜

Café Chéri

타이피에서 시작, 콜로안에도 분점을 차린 마카오 토종의 카페겸 레스토랑. 매캐니스와 중식을 적절히 결합한 다양한 메뉴로 인해, 취향에 상관없이 적당한 한끼 해결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만점이다. MOP50~65선의 점심 세트는 메인 외에 밥과 스프, 음료가 포함되는데, 가격대비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

10 도서관

역시 드라마 '궁'에 등장해서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해진 도서관이다. 하지만 무료 인터넷도 제공되며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열람할 수 있어 콜로안 빌리지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애용하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한다.



11 탐궁 사원 譚公廟

Templo de Tam Kung

벋사람들을 지켜주는 도교의 신을 모시는 곳.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안으로 들어간 후 호랑이 벽화와 고래뼈로 만든 드래곤 보트 모형을 볼 수 있다.

콜로안에 가면



12 | 학사 비치 黑沙海灘

Praia de Hac Sa

학사 비치는 검은 빛깔을 띤 모래색 때문에 이름붙여졌으며 얇은 수면 탓에 물 색깔이 탁하지만, 이 검은 성분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큼직한 현대적인 외관의 건물은 더 웨스턴 리조트 마카오(The Westin Resort Macau)이고, 오른쪽의 작은 별채들 처럼 생긴 건물들은 인근 부호들의 여름 별장이다. 여행객들에게는 더 웨스턴 리조트 마카오 바로 앞에 위치한 현지인들의 단골 매캐니스 식당 미라마(Miramar)에서의 식사와 더 웨스턴 리조트의 라운지에서 내려다보는 학사 비치의 전망과 함께 이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제 칵테일을 즐겨보는 코스를 추천한다.

Get to 세나도 광장에서 버스 21A·26A번 이용, 30분 소요. 콜로안 빌리지에서 갈 때는 버스 26A번 이용, Hac-Sa/H. Garden 黑沙/海蘭花園 하차, 5분 소요



13 | 마카오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 澳門大熊貓館

Pavilhão do Panda Gigante de Mac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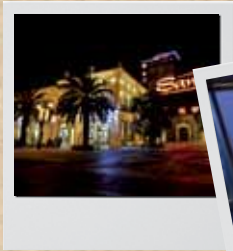
콜로안에 자리한 식 파이 반 파크(石排灣郊野公園, Seac Pai Van Park)의 자이언트 판다 파빌리온에 가면 중국에서 마카오로 보낸 귀여운 판다 두 마리, 카이카이(開開, Kaikai)와 씬싰(心心, XinXin)을 만날 수 있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 두 마리의 판다들은 실제로 보면 더욱 사랑스럽다. 종종 끝없는 식탐으로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Get to 버스 15·21A·25·26·26A·50·N3번 이용. 식 파이 반 파크(石排灣郊野公園, Seac Pai Van Park) 내에 위치 **Open** 10:00~13:00, 14:00~17:00(화~일) **Ticket** 12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그 외는 MOP10 **Tel.** 853-2833-7676 **Site** www.macaupanda.org.mo

낮보다 긴 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마카오의 밤 100배 즐기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마카오의 밤은 직접 뛰어들었을 때 더욱 즐겁다! 보석처럼 흩뿌려진 조명 사이로 한국의 밤거리보다 훨씬 느지막한 시간에서야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마카오의 밤. 클러버들을 위한 팁을 주자면 본격적인 파티 타임은 새벽 1~2시부터다.



* 영화 속 주인공이 따로 있나요?

맛있는 저녁 식사와 야경 한번에 즐기기

야경도 즐기면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는 마카오 타워(澳門旅遊塔, Macau Tower)를 추천! 마카오 타워의 58·61층 전망대에서는 마카오는 물론 중국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60층에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 360°Café는 조금씩 달라지는 마카오의 전경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

* 해외여행지에서 꼭 한번은 들려야 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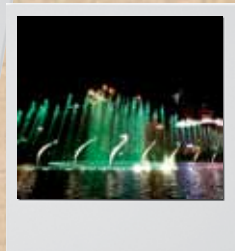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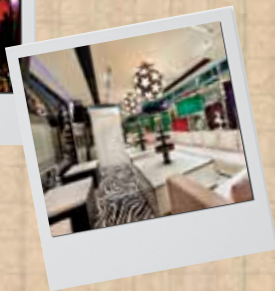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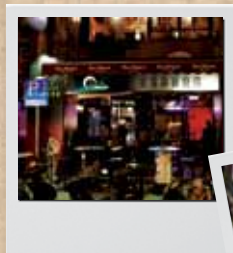
라이브 카페&클럽 체험

마카오에서 가볍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마카오 반도의 '리틀 란콰이퐁' 지역으로 가면 된다. 홍콩의 유흥가인 '란콰이퐁(蘭桂坊, Lan Kwai Fong)'의 이름을 따온 곳으로, 관음상(觀音蓮花苑, Estátua de Kun Lam)의 길 건너 맞은편 지역이다. MP3, 카사블랑카(Casablanca), 문 워커(Moon Walker) 등 필리핀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작은 라이브 카페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마카오 반도의 최고의 핫한 클럽으로는 시티 오브 드림즈 내에 새롭게 오픈한 클럽 큐빅과 마카오 반도의 D.D.2 (그랜드 엠퍼러 호텔 맞은편에 있는 AIA Tower 2층에 위치)가 있다. 평상복 차림으로는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이곳에 갈 계획이라면 특별히 옷차림에 신경 쓸 것. 이외에도 유명 호텔 안에는 모두 고급스러운 샴페인 바나 클럽·팝들이 자리해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특히 엠지엠 마카오의 바들은 스타 일리시함을 넘어서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자랑하고 있어 어느 한 곳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마지막으로 위스키 마니아라면 코타이 스트립의 갤럭시 안에 위치한 매갈란 위스키 바(Macalalan Whisky Bar)를 주목하자. 중후한 정장을 입은 남성만의 공간으로, 하루의 피로를 한 잔에 날려버리기에 그만인 분위기다.

* 매력적인 마카오의 밤을 느끼다

화려한 조명과 분수쇼

마카오의 밤은 무벽이 여행자들에게도 또 다른 멋을 선사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윈 호텔(Wynn hotel)에서 벌어지는 분수쇼다. 수면에서 하늘로 솟아나는 분수의 향연, 웅틀임, 그리고 그와 어우러진 물보라와 화려한 조명이 물입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일대는 마카오 반도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원색의 조명을 자랑하는 리스보아 호텔과 그랜드 리스보아가 매력적인 빛을 뽐어낸다. 조금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성 바울 성당 주변도 좋다. 봄비던 낮의 인파는 온데간데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계단에 걸터앉아 폐허의 조명과 거리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기에는 더 없이 좋다.



PART

4

마카오 즐기는 법



마카오의 쇼핑은 마카오 반도 남단과 코타이 스트립에 대해 복합 쇼핑센터들이 속속 들어오며 최근 몇 년 새 놀라우리만치 달라지고 있다.



명품이나 디자인 브랜드에 관심이 있다면?

마카오 반도에서의 최고의 명품 쇼핑지는 단연, 원 센터 몰 마카오(壹號廣場, One Central Macau)다. 만다린 오리엔탈 마카오와 MGM

마카오와 연결된 이 쇼핑몰은 플래그십 스토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근의 원 마카오의 윈 에스플라나드(永利名店街 Wynn Esplanade) 역시 빠짐없는 브랜드 컬렉션과 화려한 쇼핑 공간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유명하다. 한편 코타이 스트립에서는 포시즌스 호텔 마카오의 더 샵스 앳 포시즌스(四季名店, The Shoppes at Four Seasons)이 가장 다채로운 컬렉션을 갖추고 있으며, 더 베네시안 마카오의 그랜드 캐널 샵스(大運河購物中心, Grand Canal Shoppes)은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가장 많은 점포 수로, 시티 오브 드림즈의 더 볼라드(新濠大道, The Boulevard)는 시계, 가전, 캐릭터 등 이색적인 아이템 샵들로, 마지막으로 2013년에 오픈한 샌즈 코타이 센트럴의 샵스 앳 샌즈 코타이 센트럴(金沙城中心, Shoppes at Sands Cotai Central) 최대 규모의 어린이 용품 매장 등이 강점.

슈퍼마켓을 선호하는 알뜰 소비자라면?

인구가 불과 50만에 불과한 마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마카오 슈퍼마켓 쇼핑의 핵심은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품목의 다양성 면에서 월등한 수입제품들이다. 마카오에서 가장 커다란 슈퍼마켓 체인은 로이로이(來來超級市場, 산미우(新苗超級市場)이다. 편의점도 현지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는 습격(?)의 대상인데, 규모가 큰 편의점이 드문 편이다.

마카오의 유일한 백화점, 뉴 야오한 新八佰伴, New Yaohan 뉴 야오한은 마카오에 있는 유일한 백화점이다. 분위기는 우리나라 백화점과 비슷하며,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서 쇼핑하기에 편하다. 참고로 뉴 야오한의 8층에는 푸드 코트가 있는데, 일식·태국식은 물론 한국 음식까지 맛볼 수 있다. 한편 평균 10시까지 영업하는 여유로운 영업 시간도 장점이다.

Get to 세나도 광장에서 그랜드 리스보아 쪽으로 가다가 Avenida Praia Grande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계속 걸어가면 왼편 공원 뒤편에 백화점이 보인다

Tip 고민 없는 선택, 마카오 선물 BEST 4

포르투갈 와인 MOP80~

포르투갈 와인은 유럽 3대 와인 가운데 하나지만 생산량의 대부분이 유럽 내에서 소진되어서 한국에서 맛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마카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포르투갈 와인은 최고의 선물 아이템. 특히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첨가하여 단 맛을 강화시킨 포트와인(Port Wine)이 가장 유명하다. 가격대도 다양해서 큰 부담이 없다. 특히 포트와인은 일반 와인에 브랜드를 첨가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달콤한 것이 특징.

Buy 와인 박물관(葡萄酒博物館, Museu do Vinho), 로이로이, 산미우 슈퍼마켓, 뉴 야오한 백화점 등



아몬드 쿠키 1Box MOP40~

아몬드가 들어 있어서 몸에도 좋고 맛도 고소한 마카오 최고의 명품! 커피나 따뜻한 차 한 잔에 곁들이면 잘 어울린다.

Buy 곳곳에 지점이 있는 초이헝윤(咀香園餅家, Pastelaria Choi Heong Yuen), 코이케이(鉅記餅家, Pastelaria Koi Kei)



포르투갈풍의 수탉 장식품 MOP30~

포르투갈에서 수탉은 '정의를 상징한다. 화려한 수탉 모양의 장식품이라면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Buy 성 바울 성당의 유적으로 올라가는 Ruade S. Paulo 거리의 기념품 숍

마카오 크리에이션 기념품 Mop15~

해당 지역의 개성을 뽐낼 담은 그 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은 모든 여행자들이, 어느 나라에서건 눈독 들이는 핵심 쇼핑 아이템. 마카오에서는 마카오 크리에이션 스토어에서 그런 기념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 디자이너들이 마카오의 문화, 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디자인 제품들은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합리적. 마카오 터워, 성 바울 성당의 유적 근처, 베네시안 마카오 그랜드 캐널 샵스, 타이파 빌리 쿤하 거리 등에서 매장을 만날 수 있다.

Buy www.macaucreations.com



마카오에서, 마카오니까 즐길 수 있는 시간 - 공연

눈과 귀가 즐거워 지는 시간.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한 볼거리로 중무장한 마카오의 공연을 온 몸으로 느껴보자.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水舞間

The House of Dancing Water

태양의 서커스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공연 연출가 프랑코 드 라곤 (Franco Dragon) 감독이 제작한 공연으로 물을 테마로 한 시티 오브 드림즈에 맞추어 역시 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무려 140,000m³,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5배를 채울 수 있는 물이 11개의 수압기, 239개의 워터 제트를 통해 분출되며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이 같은 수조 위를 1초안에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무대 위와 아래에서는 올림픽 출신 선수들 및 전문 아티스트들이 뛰고 구르고 하늘을 날아오르며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2009년 개장 이래 연일 만석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공연은 이제껏 보아오던 엔터테인먼트한 한계를 뛰어넘는 공연이다.

Ticket C석 HK\$580, B석 HK\$780, A석 HK\$980, VIP석 HK\$1480 **Time** 17:00, 20:00(목~일,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Web www.thehouseofdancingwater.com



드래곤 트레저 龍騰

Dragon's Treasure

시티 오브 드림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중 하나. 천정에서 쏟아지는 물, 초대형 360도 디지털 화면으로 인해 눈을 어디에 뒀어야 할지 모르는 임팩트한 18분이 순식간에 흘러간다. 공연은 사악한 용을 물리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하늘에서 디지털 돈이 떨어지고, 중국 관객들이 두 팔을 벌려 돈을 받는 풍경은 좀 이질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저렴하게 디지털 아트를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관람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관람비가 있긴 하지만, 시티 오브 드림즈에서 공연당일 MOP200이상의 돈을 쓸 때마다 한 장의 무료티켓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수증은 반드시 지참 할 것.

Ticket MOP50 **Time** 12:00~20:00

Web www.cityofdreamsmacau.com/ko/entertainment/dragon-treasures



코타이 아레나 金光综艺馆

Cotai Arena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공연 콤플렉스인 코타이 아레나에서는 매일 흥미로운 공연이나 전시가 펼쳐진다. 한류 스타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는 물론, 팝스타 리한나, 롤링스톤즈 콘서트, UFC 및 NBA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 등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Web www.cotaiticketing.com

스릴 넘치는 마카오에서의 모험 - 액티비티

짜릿한 전율을 체험할 수 있는 마카오 타워.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번지점프, 스릴만점의 스카이워크X와 스카이점프, 긴장감 넘치는 아이언워크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해 보자.



번지점프&스카이점프

Bungee Jump & Sky Jump

마카오는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흥분과 열정이 넘치는 다이내믹한 도시이기도 하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마카오 여행에서 반드시 체험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카오 타워의 다양한 액티비티다. 마카오 타워에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등재된, 높이 233m의 아찔한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범지점프(Bungee Jump)와 스카이점프(Sky Jump)를 체험할 수 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상용 번지점프로 등재되어 있는 마카오 타워에서의 번지점프는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번지점프클럽, 에이제이 하켓(AJ Hackett)에서 관리하고 있어 어린아이들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마카오에는 누구나 기네스 세계 신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도전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자.



스카이 워크 X

Sky Walk X

번지점프 외에도 타워의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바깥의 난간을 걸어 다니는 스카이워크 X(Sky Walk X)도 체험할 수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233m의 타워 난간을 걸으며 마카오 반도와 주강하구, 타이파 섬은 물론 중국 주하이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360도로 구성된 타워 외벽 레일을 따라 돌며 감상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X는 오버 헤드 레일 시스템(overhead rail system)과 숙련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200미터 상공 위를 부는 상쾌한 바람을 맞는 것은 덤이다. 눈 딱 감고 뛰어내리기보다 계속 높은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의 초급자 난이도로 어린아이들도 무리 없이 즐긴다.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짧은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함으로 남을 순간이 마카오 타워에서 기다리고 있다.

Ticket 번지점프 MOP2,888, 스카이점프 MOP1,888, 스카이워크 MOP788, 마스트클라임 MOP1,888

Web www.macautower.com.mo

일년365일 새로운 마카오 - 이벤트&축제

설 축제부터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국제꽃놀이대회부터 마카오 그랑프리까지 마카오의 일 년 캘린더를 빼곡하게 채우는 축제들은 유래도 의미도 재미도 남다르다. 어느 때에 방문하더라도 흥미를 끄는 이벤트와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5월~6월 초 마카오 예술축제

Macau Art Festival

이 축제는 줄여서 MAF라고도 부른다. 2014년, 25회째를 맞은 마카오 예술축제로 5월 한 달 사이 아시아와 유럽의 공연가들이 모여 음악,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벌인다. 주요 공연장은 마카오 반도의 탐석광장 주변, 과거 포르투갈령이었던걸 반영하듯 파두(Fado)같은 우리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장르의 공연도 벌어진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공연뿐 아니라 곳곳의 갤러리에서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려 다양한 관객의 입맛을 충족시킨다.

9월 중순~10월 초 마카오 국제 불꽃놀이 대회

Macau International Fireworks Display Contest

매년 가을마다 약 5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밤에 벌어지는 불꽃놀이 축제. 한국의 서울에서 매년 가을 볼 수 있는 불꽃놀이 축제와 거의 흡사한다. 아무래도 중화권인 마카오 불꽃축제의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최고의 명당자리는 마카오 타워의 전망대와 1층 테라스인데 이때에 맞춰 부설 뷔페 식당도 특별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최대 규모는 궁궐절인 10월 1일 밤. 이 날은 마카오의 모든 시민이 밖으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붐빈다.

12월 중순 마카오 라틴 시티 퍼레이드

Macau Latin City Parade

2011년부터 시작된 새내기 축제. 마카오의 중국반환일인 12월 20일에 펼쳐지는데, 날차 덕분에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가장 무도회 분장을 한 무용수들이 성 바울 성당 유적지를 출발, 성 안토니오 성당, 성 라자러스 성당 지구, 탐석광장까지 약 2km구간을 행진한다. 축제기간에는 해외 초청 공연팀은 물론 마카오의 수많은 공연단체 및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거리가 온통 사람들로 넘쳐나니, 일찌감치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 즐거운 관람의 비결!

11월 중순 마카오 그랑프리

Macau Grand Prix

무려 6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카오 그랑프리. F1 보다 배기량이 적은 F3에 속하는 마카오 그랑프리는 맨승맨승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전적으로 오산. 별도의 경기장이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 경주와 달리 마카오 그랑프리는 실제 마카오의 도로를 막고 진행된다. 수많은 고가도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유명한 마카오는 현재 그랑프리 중 가장 난해한 서킷 가운데 하나로 아찔하고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이 펼쳐진다. 자동차와 함께 바이크 경주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를 더한다. 마카오 그랑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 경주임에 분명하다. **Web** www.macau.grandprix.gov.mo/cgpm/

기타 축제 및 이벤트

1월~2월 음력 설 축제

중국의 전통적인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마카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 중 하나다. 이 축제 기간에는 사원하고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로 곳곳에 화약과 불꽃놀이가 벌어져 한국의 명절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3월 파스스 성애의 행진

성 아우구스틴 성당에 안치된 예수상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종교 행사. 완벽하게 정복을 갖춰 입은 카탈릭 성직자, 경찰, 철반대, 신도회, 학생 등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렬이 장관을 이룬다.

4월 아마 축제

폭풍우를 물리쳐 어부들을 구해냈다고 알려진 아마 여신에게 감사의 공물을 올리는 축제. 언제나 참배객들로 북적거리는 아마 사원이지만 축제 기간에는 더욱더 진한 연기와 불비는 인파로 생기가 넘친다.

5월 술 취한 용의 축제

술의 힘을 빌려 용기를 얻은 한 남자가 사막인 용을 물리쳤다는 전설에 기인한 중국 전통 축제.

12월 마카오 국제 마라톤 대회

마카오, 홍콩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풀 코스, 하프 코스, 미니 코스 등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기량에 맞게 참가할 수 있다. 해마다 코스를 조금씩 달리해 매년 참가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 ※ 보다 자세한 축제 일정은 마카오정부관광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acautourism.gov.mo>
- ※ 마카오 공연&전시&축제 티켓 구입처 www.macauticket.com

마카오, 그리고 이외의 마카오의 발견 - 박물관

마카오에는 다양한 테마의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많다. 이곳만 둘러보아도 마카오의 역사와 문화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의외로 방대한 자료와 꼼꼼한 전시, 다양한 체험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랑프리 박물관

大賽車博物館 Museu do Grande Prémio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마카오 그랑프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곳.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다. 수식 대의 멋진 레이싱 카와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트로피와 각종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게다가 가상 운전 체험까지 해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Get to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버스 1A·3·10B·10X·28A·28B·28BX·31·32번 이용, 투어리즘 액티비티 센터(旅遊活動中心, Centro Actividades Turísticas)에서 하차

Add 431 Rua de Luis Gonzaga Gomes **Open** 10:00~20:00(수~월 2014년 12월 31일 까지) **Ticket** 2014년 12월 31일까지 무료 **Tel.** 853-8798-4108

Site www.macau.grandprix.gov.mo



와인 박물관

葡萄酒博物館 Museu do Vinho

와인 애호가라면 꼭 한번쯤 둘러보아야 하는 박물관으로, 포르투갈은 물론이고 중국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포도주 제작에 쓰이는 각종 도구들과 제작 방법, 그리고 와인 창고도 볼 수 있다. 또 마지막에는 포르투갈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종류 소개와 함께 실제 시음을 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Get to 그랑프리 박물관 옆

Add 431 Rua de Luis Gonzaga Gomes **Open** 10:00~20:00(수~월 2014년 12월 31일 까지) **Ticket** 2014년 12월 31일까지 무료 **Tel.** 853-8798-4188



마카오 박물관

澳門博物館 Museu de Macau

마카오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자.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미니어처와 실제로 지어놓은 마카오의 가옥과 가게 등 마카오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 보기 좋게 전시해놓았다. 일반적인 박물관과 달리 마치 테마 파크에 놀러 온 듯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Get to 성 바울 성당의 유적 오른쪽에 있다 **Open** 10:00~20:00 **Ticket** 어른 MOP15, 11세 이하 어린이 MOP8(매달 15일은 무료) **Tel.** 853-2835-7911 **Site** www.macaumuseum.gov.mo



그 외 가볼 만한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박물관

通訊博物館 Museu das Comunicações

우편 및 통신 관련 전시물을 이것저것 만져볼 수 있는 체험관. 다소 관광지와 거리가 멀지만 관음당이 인근에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Get to 버스 2, 2A, 18번 이용, 澳門電力有限公司Companhia de Electricidade de Macau(C.E.M.)에서 하차, Ramal dos Mouros 길을 따라 올라가다 Estrada de D. Maria II길에서 좌회전. **Open** 09:00~17:30(17:00까지 입장, 월요일 및 음력설 연휴 시작 후 3일 간 휴무) **Ticket** 어른 MOP10, 학생 MOP5 **Tel.** 853-2871-8063 **Site** www.macao-communications.museum

PART
5

마카오 여행 입문서



Info of Macau

마카오 기본 정보

마카오는 이웃한 홍콩과 여러모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다.
마카오가 처음인 여행자라면 꼭 한번 훑어보아야 할 기본 정보들.

시차

한국에 비해서 1시간이 느리다.

통화

마카오의 화폐 단위는 파타카(Pataca)이며, MOP로 표기한다 (MOP1≒150원). 마카오에서는 홍콩달러 HKD를 함께 사용하지만, 반대로 홍콩에서는 파타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마카오에 오래 머무를 예정이라면 파타카로 환전을 하는 것이 낫고, 만약 홍콩에서 잠깐 마카오를 들렀다면 그대로 홍콩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물건을 샀을 때 거스름돈을 파타카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자. 공항과 페리 터미널, 시내에 환전소가 있으며 환전소마다 약간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

카드 사용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하면 마카오에서는 카드 사용이 쉽지 않다. 슈퍼마켓도 MOP100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심지어 맥도날드 등에서도 카드 사용이 어려우니 현금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언어

중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공식어지만 위치상 광둥 지역에 속하는 마카오는 인구의 90% 이상이 광둥어를 사용한다. 길거리 표지판에는 한자와 포르투갈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지만, 보통 영어나 포르투갈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길을 물어볼 때는 중국어(한자)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 낫다.

날씨

마카오는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라 인개가 자주 끼고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날이 많다. 여름은 매우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특히 5~9월에는 가끔 태풍이 올 때도 있어 야외 활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10~2월로 날씨도 좋고 습도도 낮은 편. 여름에는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기 때문에 얇은 긴소매 옷을 하나쯤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기

220V를 사용하지만 플러그 모양이 우리의 것과는 달라 멀티플러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말하면 빌려주기도 한다.

치안

카지노로 유명한 지역이라 혹시 치안이 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특히 밤이 되면 200m마다 1명꼴로 경찰관이 서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혼자 다니는 경우는 자제하자.

인터넷·통신

호텔이나 카페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또 세나도 광장의 관광안내소를 포함해 대부분의 관광안내소와 도서관·박물관들은 와이파이 존에 해당된다.

'WiFi Go'라고 쓰인 표지판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와이파이 존이며 마카오 전역에 9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자세한 정보 : <http://www.wifi.gov.mo>). 일부 호텔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호텔에서는 프린트 데스크에 신청하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1일 MOP120 내외).

관광안내소

마카오국제공항을 비롯해서 페리 터미널·세나도 광장·기아 요새 등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마카오 관광지, 버스 노선도는 물론 호텔 정보 같은 필요한 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또한 마카오정부관광청에서는 관광 안내 전화(853-2833-3000)를 통해 광둥어, 북경어, 포르투갈어, 영어, 일본어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레스토랑

-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단, 이미 10%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영수증을 확인할 것.
-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반찬이나 차는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국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두 세트의 젓가락을 주는데, 하나는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 때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면 된다.

대사관

마카오에는 영사관이 없다. 따라서 만약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라도 여권을 분실할 때에는 우선 마카오의 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발급받은 뒤 이민국을 거쳐 다시 경찰서를 가야 한다. 그 다음 홍콩의 총영사관까지 가야 임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주홍콩 총영사관

주소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香港金鐘夏愨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여권&비자 관련 업무 시간

월~금요일 09:30~12:00 (접수) 13:30~16:30 (수령)

대표전화 852-2529-4141

※공휴일 및 근무 시간 이후의 긴급한 민원이 있을 시에도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다.

영사·민원 업무 852-2528-3666

가는 방법 홍콩 MTR 애드미럴티(金鐘 Admiralty) 역의 B번 출구로 나와 맞은편 금색 빌딩 5층에 있다.

비자

한국은 마카오와 90일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라 따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입국일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하므로 마카오로 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을 꼭 체크하도록 한다.

2013년 7월부터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마카오 입국 시 출입국 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출국 시 제출해야 하는 카드는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 마카오 체류 중에는 출입국 카드를 잘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세관

마카오 방문객들에 대한 세관 검사는 간단히 진행되는데, 면세 할당량을 넘어서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마카오 세관 서비스 홈페이지(www.customs.gov.mo)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원

여행 중에 다치거나 몸이 많이 아프면 서둘러 병원으로 가는 것이 낫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시설도 괜찮으니 안심할 것.

●산 자누아리오 병원 仁伯爵綜合醫院

Centro Hospitalar Conde de São Januário

Add Estrada do Visconde de S. Januario

Tel. 853-2831-3731

●키양우 병원 鏡湖醫院, Kiang Wu Hospital

Add Estrada Coelho do Amaral

Tel. 853-2837-1333

공중 화장실

마카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단, 화장지는 관리인으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보통 작은 사이즈의 휴지 10매 정도 들어 있는 패키지가 MOP1 정도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2012년 1월부터 마카오의 대부분 공공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위반 시 최대 MOP6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자의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 재입국시 제지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관리부서 Tobacco Prevention and Control Office, Health Bureau

주소 Estrada de S. Francisco no. 5, Macau

신고 및 문의 853-2855-6789

핫라인 853-2848-1238

웹사이트 <http://www.ssm.gov.mo/smokefree>

마카오 여행 시 유용한 전화번호

- ★ 24시간 긴급 핫라인 853-110, 853-112
- ★ 경찰 853-999
- ★ 날씨 안내 853-1311
- ★ 블랙 택시 853-2893-9939
- ★ 마카오 항공 853-8396-6888
- ★ 마카오국제공항 853-2886-1111
- ★ 마카오 페리 터미널 853-8790-7039
- ★ 마카오정부관광청 853-2831-5566
- ★ 관광청 안내센터 853-2833-3000

Info of Macau

마카오 가는 법, 마카오에서 오는 법

마카오는 우리나라에서 3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매우 가까운 곳이다. 게다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마카오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도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잠깐 짬을 내어 다녀올 수 있다. 지금부터 마카오 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김해국제공항 ↔ 마카오국제공항

마카오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직항편인 에어마카오 (Air Macau)와 진에어 (Jin Air)를 이용하면 된다. 에어마카오는 인천과 마카오를 매일 1회 왕복하며 성수기에는 주2회 증편 및 지방 공항에서 전세기를 운항하기도 한다. 진에어 역시 주 3회에 주7회까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 중이다.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에어부산 (Air Busan)이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항 중이다.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직항 비행기는 현재 대부분 새벽 2시 경 출발 한다. (2014년 4월 기준) 현재 마카오국제공항에 충분한 사위 및 수면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야간 시 일부 식음료장과 라운지, 면세점만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자. 마카오국제공항은 위탁 수화물의 경우 체크인 전 검색 확인을 하고 있으며, 검사 완료 후 파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가방은 다시 열 경우,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 스티커를 받아야 체크인 시 짐을 부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에어마카오 www.airmacau.co.kr

진에어 www.jinair.co.kr

에어부산 www.airbusan.com

홍콩국제공항 ↔ 마카오 페리 터미널

홍콩국제공항에서는 마카오까지 연결되는 페리를 바로 탈 수 있다. 홍콩국제공항의 스카이 피어(Sky Pier)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공항에서 홍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어 편하다. 단, 항공편 스케줄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Ferry Transfer Desk 표시판을 따라 가면 터보젯 티켓 매표소가 보인다. 이곳에는 마카오 반도의 마카오 페리 터미널 행과 타이파 임시 페리 터미널 행이 구분되어 있으니 잘 보고 구입할 것. 만약 코타이 지역의 호텔에 갈 계획이라면 타이파 임시 페리 터미널이 가깝다. 페리 티켓을 구입할 때 짐표를 주면 페리 티켓과 새 짐표를 준다. 이것으로 마카오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면 된다. 단, 짐표를 찾아야 할 짐이 있는 경우, 홍콩국제공항의 비행기 도착 시간과 페리 출발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되어야 짐을 안전하게 옮겨 실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반대로 페리를 타고 와서 비행기로 출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스카이 피어까지는 모노레일로 이동하며, 마카오까지는 페리로 약 50분 소요된다. 마카오에서 스카이 피어를 통해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경우, 역시 홍콩에서 출국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카이 피어 내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면 출국수수로 환급 영수증을 보딩 패스와 함께 준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면 에스컬레이터 옆 작은 데스크에 영수증과 보딩패스를 제출하고 1인당 120HKD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홍콩 페리 터미널 ↔ 마카오 페리 터미널

홍콩 도심에는 홍콩-마카오 페리 터미널 (홍콩섬, MRT 성완역)과 차이나 페리 터미널 (구룡반도, MRT 침사추이역)에서 마카오 행 페리를 탈 수 있다. 마카오에는 마카오 페리 터미널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임시 페리 터미널 (타이파, 마카오국제공항 옆)에서 홍콩 도심 및 공항 페리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배편을 운항 중인 노선은 홍콩-마카오 페리 터미널과 마카오 페리 터미널 노선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며 배선 간격은 보통 15~30분이다. 홍콩 도심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페리를 이용할 때는 출국심사 소요 시간을 고려, 출발 30분전까지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 좋다. 짐은 수화물로 보낼 경우, 1개당 MOP20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시간은 약 50분 소요된다.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혼잡하니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터보젯 www.turbojet.com.hk
- 코타이 스트립 코타이젯 www.cotaijet.com.mo
- 주강여객운송유한회사(CKS) www.cksp.com.hk
- 퍼스트 페리 www.nwff.com.hk

요금

홍콩국제공항 ↔ 마카오 HK\$246~

홍콩 페리 터미널 ↔ 마카오 HK\$139~

터보젯, CKS 한국 판매 대리점 개설!

범야항운(주)에서 터보젯과 CKS 한국 판매를 맡게 되면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페리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할 것.

웹사이트 <http://turbojet.tarcos.net/>
전화번호 051-463-0093



Tip

마카오에서 중국을 여행하려면

마카오는 본토 내 대도시를 연결하는 항공사 및, 광둥성 주요 도시와 버스 및 페리도 운영하고 있다. 단, 한국국적자는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입국비자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아 가져나, 마카오 현지에서 144 VISA(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단기 체류비자는 국경 관문 및 현지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광둥성주요도시 → 마카오 (버스)

치관 모터 로드(Kee Kwan Motor Road Co., 岐關車路)

마카오 : (853)2893-3888

주하이 : (0756)828-1003, (0756)828-1002

차이나 트래블 서비스(China Travel Service)

마카오 : (853) 8798-0868

주하이 : (0756) 888-8466

중국본토와 마카오를 연결하는 육상관문

국경 관문(The Barrier Gate)

운영 시간 : 오전 7:00~자정

코타이 프론티어 포스트(COTAI Frontier Post)

운영 시간 : 오전 9:00~저녁 8:00

Info of Macau

마카오 시내 교통수단

마카오에서는 명소들이 모여 있어서 시내 교통수단을 이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가야 요새 등 거리가 다소 먼 명소에 갈 때와 마카오 반도에서 타이파나 콜로안에 갈 때는 버스나 택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

마카오국제공항&페리 터미널 ← 마카오 시내

Arrival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진짜 마카오에 도착한 것! 시내까지는 버스나 택시, 호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도에 위치한 페리 터미널부터 시내까지는 약 10분, 타이파에 위치한 공항부터 시내까지는 약 30분이 소요된다.

공항버스 AP1 요금은 MOP4.2,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MOP3.2 정도이며 택시로는 페리 터미널부터 시내까지는 MOP20, 공항에서부터 페리 터미널까지는 MOP40, 공항에서 세나도 광장까지는 MOP60 정도면 충분하다. 단,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는 추가 요금 MOP5를 내야 하고 트렁크에 큰 짐을 싣게 되면 1개당 MOP3가 추가된다(공항버스도 마찬가지). 공항버스는 하차 안내 방송이 없고 택시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운전기사가 많으니 하차할 곳을 미리 한자로 적어서 보여주면 좋다. 대형 호텔들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시내에서 공항 또는 페리 터미널로 향할 때에도 트렁크에 큰 짐을 싣게 되면 1개당 MOP3 추가 요금이 붙는다. 또한 택시의 경우 오후 6시무렵은 교대 시간으로 택시를 잡기 어려우니 비행기나 페리 탑승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자.



시내버스 巴士, Bus

마카오의 시내버스에는 Transmac, TMC, Reolion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와 작은 미니버스가 있다.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 노선도가 그려져 있고, 버스 정면에 번호와 목적지가 써어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다. 버스를 탈 때는 앞문을, 내릴 때는 뒷문을 이용한다. 요금은 버스 승차 시 운전기사 옆의 요금함에 넣으면 되는데, 거스름돈은 주지 않으니 미리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내릴 때가 되면 백이나 천장의 고무벨트나 바, 스위치를 누를 것. 요금 마카오 반도 전역은 MOP3.2, 마카오 반도-타이파 MOP4.2, 마카오 반도-코타이 스트립&콜로안 MOP6.4

마카오의 버스카드 "MACAUpass"



마카오전역을 누비는 모든 버스를 잔돈 교환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마카오패스는 버스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물건구매도 가능하다. 단 보증금 환불은 지정된 2곳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할 것.

구입가격 : MOP130 (보증금 MOP30 포함)

충전가능금액 : 최소MOP50 ~ 최대 MOP1,000

마카오패스 판매, 충전 및 물건 구매 가능장소 :



마카오패스 환불처 : Macau Pass Customer Service Center, Transmac Service Center

택시 的士, Taxi

마카오의 택시 요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꽤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일행이 여럿이라면 택시를 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택시는 시내에 있는 호텔&카지노 앞에서 타면 된다.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광둥어로만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 목적지를 한자로 적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요금 1.6km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MOP150이다. 마카오국제공항에서 타면 MOP5의 추가 요금이 있으며, 트렁크에 짐을 싣을 경우 1개당 MOP3의 추가 요금이 있다. 마카오 반도에서 콜로안으로 갈 때는 MOP5, 타이파에서 콜로안으로 갈 경우에는 MOP2의 할증 요금이 붙는다.

호텔 셔틀버스 Hotel Shuttle Bus

마카오 대부분의 호텔들은 투숙객이나 카지노 손님들을 위해서 마카오국제공항이나 페리 터미널·중국 국경관문에서 호텔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원하면 대부분 탑승할 수 있어서 적절히 이용하면 편리하게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콜로안을 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베네시안 마카오행이나 시티 오브 드림즈행 셔틀버스를 타면 타이파로 갈 수 있고, 더 웨스틴 리조트 마카오행 셔틀버스를 타면 콜로안의 학사 비치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마카오 반도의 시내 중심가로 가야 한다면 그랜드 리스보아행이나 윈 마카오행, 또는 엠지엠 마카오행 등을 타면 된다. 호텔에 도착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면 되는데, 그랜드 리스보아나 윈 마카오에서 세나도 광장까지는 도보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페디 캡

三輪車, Pedit Cab

주로 마카오 페리 터미널과 리스보아 앞에 많이 있는데, 간혹 여행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싼 요금을 부를 때가 있으니 흥정을 잘해야 한다.



렌터카 Rent-a-car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등록하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카오는 운전 및 운전석 방향이 우리와 반대이며 일방통행이 많고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이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Tip

마카오에서 길을 건널 때는 특별히 조심하세요!

마카오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차량이 좌측통행이며, 자동차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다. 따라서 무심결에 길을 건너면 사고가 나기 쉬우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신호등이 켜져 있는 지 잘 보고 건너고, 혹시 신호등이 없는 거리라면 차량이 없을 때 건널 것. 현지인들이 큰 도로에서도 무단 횡단을 많이 하는데, 낯선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철저히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이 좋다.

마카오에는 일방통행이 많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마카오 반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난히 일방통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대마로(大馬路)라고 불렀던 길이지만 지금은 좁지만 한데, 이런 좁은 길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정부가 역사의 흔적이나 오래된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유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혹시 택시를 탔다면 운전기사가 가까운 거리를 일부러 빙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는 하지 말 것

좀 더 편하고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투어 머신'은 어떻게?

투어 머신(Tour Machine)은 운전기사와 함께 마카오 반도 전체를 정해진 코스대로 도는 일종의 관광용 차량이다. 1920년대 영국식 버스를 본떠서 만든 빈티지 스타일의 빨간 자동차로, 마치 옛날 영화 속이나 나온 직한 차처럼 특이하고 예뻐서 눈길을 끈다. 요금은 좀 비싼 편이지만 대신 특이한 자동차를 타고 찾아가기 힘든 명소까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이동하는 내내 명소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아마 사원이나 성비를 상당의 유적·펜하 성당·관음당 등 네 군데에서는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둘러볼 시간을 갖는다. 총 9인승 차량이지만 최소 2인 이상이 되면 출발이 가능하다. 출발 시간은 매일 11:00, 15:30이며 총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요금은 어른 MOP180, 12세 이하 어린이 MOP100. 이외에도 마카오 타워 입장과 타워 내 360°카페의 뷔페 식사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www.avis.com.mo/tour_machine.html)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



마카오 호텔 리스트

마카오 반도

★★★★★ 5 STAR DELUXE

그랜드 리스보아 新葡京酒店
GRAND LISBOA HOTEL
Rooms 431
Tel. 853-2828-3838
www.grandlisboahotel.com

더 랜드마크 澳門置地廣場酒店
LANDMARK HOTEL
Rooms 451
Tel. 853-2878-1781
www.landmarkhotel.com.mo

샌즈金沙酒店, SANDS
Rooms 289
Tel. 853-2888-3388
www.sands.com.mo

엠지엠 마카오
美高梅澳門, MGM MACAU
Rooms 360
Tel. 853-8902-8888
www.mgm-macau.com

윈 마카오
永利澳門酒店, Wynn Macau
Rooms 1,014
Tel. 853-8886-9966
www.wynn-macau.com

★★★★★ 5 STAR

그랜드 라파 마카오
澳門金華酒店
Grand Lapa Macau
Rooms 407
Tel. 853-2856-7888
www.mandarinoriental.com/grandlapa

라크 호텔 마카오
澳門凱旋門酒店
iARC HOTEL MACAU
Rooms 301
Tel. 853-2822-3388
www.larc-macau.com

로얄 황궁酒店, ROYAL
Rooms 380
Tel. 853-2855-2222
www.hotelroyal.com.mo

리비에라 호텔 마카오
濠珠酒店
RIVIERA HOTEL MACAU
Rooms 161
Tel. 853-2833-9955
www.riverahotel.com.mo

리스보아 葡京酒店, LISBOA
Rooms 1,071
Tel. 853-2888-3888
www.hoteleslisboa.com

만다린 오리엔탈 마카오
澳門文華東方酒店
MANDARIN ORIENTAL MACAU
Rooms 214
Tel. 853-8805-8888
www.mandarinoriental.com-macau

소피텔 마카오 폰테 16
澳門十六浦索菲特大酒店
SOFITEL MACAU AT PONTE 16
Rooms 408
Tel. 853-8861-0016
www.sofitel16.com.mo

스타월드 호텔 星際酒店
STARWORLD HOTEL
Rooms 501
Tel. 853-2838-3838
www.starworld-macau.com

포우사다 데 산티아고
聖地牙哥古堡酒店
São Tiago da Barra
Rooms 13
Tel. 853-2837-8111
www.saotiago.com.mo

★★★★ 4 STAR

골든 드래곤 金龍酒店
GOLDEN DRAGON
Rooms 483
Tel. 853-2836-1999
www.goldendragon.com.mo

호텔 카사 레알 皇家金堡酒店
HOTEL CASA REAL
Rooms 381
Tel. 853-2872-6288
www.casarealhotel.com.mo

리오 호텔
利澳酒店, RIO HOTEL
Rooms 449
Tel. 853-2871-8718
www.riomacau.com

메트로파크 호텔 維多利亞酒店
METROPARK HOTEL
Rooms 350
Tel. 853-2878-1233
www.metropark-macau.com

프레지던트 호텔
總統酒店, PRESIDENT HOTEL
Rooms 271
Tel. 853-2855-3888
www.hotelpresident.com.mo

호텔 비벌리 플라자
富豪酒店
HOTEL BEVERLY PLAZA
Rooms 300
Tel. 853-2878-2288
www.beverlyplaza.com.mo/en

홀리데이 인 마카오
HOLIDAY INN MACAU
Rooms 424
Tel. 853-2878-3333
www.macauiholiday.com

★★★ 3 STAR

그랜드 엠파이어 호텔
大佛羅酒店
GRAND EMPEROR HOTEL
Rooms 291
Tel. 853-2889-9988
www.grandemperor.com

기아 望洋酒店, GUIA
Rooms 90
Tel. 853-2851-3888
www.hotelguia-macau.com

메트로폴
京都酒店, METROPÔLE
Rooms 112
Tel. 853-2838-8166
www.metropolehotel.com.mo

빅토리아 호텔
維多利亞酒店
VICTORIA HOTEL
Rooms 126
Tel. 853-2855-6988
www.mo-victoria.com

신트라 新麗華酒店, SINTRA
Rooms 240
Tel. 853-2871-0111
www.hotelesintra.com

엠파이어 호텔
帝濠酒店, EMPEROR HOTEL
Rooms 398
Tel. 853-2878-1888
www.emperorhotel.com.mo

왈도 호텔 WALDO HOTEL
Rooms 161
Tel. 853-2889-6688
www.waldohotel.com

포르투나
門財神酒店 FORTUNA
Rooms 386
Tel. 853-2878-6333
www.hotelortuna.com.mo

푸우야 광둥 호텔 마카오
澳門富華粵海酒店
FU HUA GUANGDONG HOTEL
MACAU
Rooms 141
Tel. 853-2855-3838

호텔 락스
英斯酒店, HOTEL ROCKS
Rooms 72
Tel. 853-2878-2782
www.rockshotel.com.mo

란카이퐁 마카오
澳門蘭桂坊酒店
Lan Kwai Fong, Macau
Rooms 200
Tel. 853-2880-0888
www.macauiik.com

★★ 2 STAR

남틴
南天酒店, NAM TIN
Rooms 25
Tel. 853-2871-1212

런던 英京酒店, LONDON
Rooms 46
Tel. 853-2893-7761

마카오 마스터스 호텔 萬事發酒店
MACAU MASTERS HOTEL
Rooms 75
Tel. 853-2893-7572
www.mastershotel-macau.com

만바 文華, MAN VA
Rooms 40
Tel. 853-2838-8655

선선 호텔
新新酒店, SUN SUN HOTEL
Rooms 178
Tel. 853-2893-9393
www.sun-sun-macau.com

센트럴
新中央酒店, CENTRAL
Rooms 163
Tel. 853-2837-3888

이스트 아시아
東亞酒店, EAST ASIA
Rooms 98
Tel. 853-2892-2433

자이알라이
回力酒店, JAI ALAI
Rooms 91
Tel. 853-2872-5599

코우바
高華, KOU VA
Rooms 28
Tel. 853-2893-0755

호우콩
濠江, HOU KONG
Rooms 40
Tel. 853-2893-7555

홀리데이
假期酒店, HOLIDAY
Rooms 44
Tel. 853-2835-0161

홍다이 호텔
康泰酒店, HONG THAI HOTEL
Rooms 20
Tel. 853-2882-3923

올레타이삼은 호텔
澳萊大三元酒店
Ole Tai Sam Un Hotel
Rooms 40
Tel. 853-2893-8818

해피 패밀리 호텔
HAPPY FAMILY HOTEL
Rooms 25
Tel. 853-2871-1212

타이파

★★★★★ 5 STAR DELUXE

알리라 新濠鋒, ALTRIRA
Rooms 216
Tel. 853-2888-8888
www.aliramacau.com

크라운 타워즈 皇庭度假酒店
CROWN TOWERS
Rooms 286
Tel. 853-8688-6888
www.cityofdreamsmacau.com

포시즌즈 호텔 마카오
四季娛樂場, FOUR SEASONS
HOTEL MACAU
Rooms 409
Tel. 853-2881-8988
www.lourseasons.com-macau

★★★★★ 5 STAR

갤러리 호텔
銀禧酒店
GALLERY HOTEL
Rooms 660
Tel. 853-2889-0888
www.gallery-macau.com

그랜드 왈도
金都酒店, GRAND WALDO
Rooms 314
Tel. 853-2888-6888
www.grandwaldohotel.com

그랜드 하얏트 마카오
澳門悅悅酒店
GRAND HYATT MACAU
Rooms 783
Tel. 853-8688-1234
macau.grand.hyatt.com

뉴 센츨리 호텔 新世紀酒店
NEW CENTURY HOTEL
Rooms 626
Tel. 853-2883-1111
www.newcenturyhotel-macau.com

반얀트리 마카오
BANYAN TREE MACAU
Rooms 148
Tel. 853-8883-6888
www.banyantree.com/en/macau/

더 베네치안 마카오
澳門威尼斯人
THE VENETIAN MACAU
Rooms 2,874
Tel. 853-2882-8888
www.venetian-macau.com

리젠시
麗景灣酒店, REGENCY HOTEL
Rooms 326
Tel. 853-2883-1234
www.regencyhotel.com.mo

콘레드 마카오
澳門金沙城中心康萊德酒店, CON-RAD MACAO, COTAI CENTRAL
Rooms 636
Tel. 853-2882-9000
www.sandscolai-central.com

호텔 오후라 마카오
HOTEL OKURA MACAU
Rooms 457
Tel. 853-8883-8883
www.hotelokuramacau.com

셀라르 마카오 호텔
코타이 센트럴
澳門喜來登金沙城中心酒店
Sheraton Macao Hotel Cotai Central
Rooms 1,823
Tel. 853-2880-2000
www.sandscolai-central.com

베이징 임페리얼 팰리스
BEIJING IMPERIAL PALACE
HOTEL
Rooms 626
Tel. 853-2883-1111
www.newcenturyhotel-macau.com

★★★★ 4 STAR

골든 크라운 차이나 호텔
金皇冠中國大酒店
GOLDEN CROWN CHINA HOTEL
Rooms 300
Tel. 853-2885-1166
www.hilichina.com.mo

그랜드 뷰 호텔
君悅酒店
GRANDVIEW HOTEL
Rooms 487
Tel. 853-2883-7788
www.grandview-hotel.com

타이파 스퀘어 駿景酒店
TAIPA SQUARE
Rooms 406
Tel. 853-2883-9933
www.taipasquare.com.mo

로얄 인판트 허버뷰 호텔
Roya Infante Harbour View Hotel
Rooms 312
Tel. 853-2883-8333
www.pousadamarininfante.com

하드록 호텔 마카오
澳門 HARD ROCK HOTEL
HARD ROCK HOTEL MACAU
Rooms 322
Tel. 853-8688-3338
www.cityofdreamsmacau.com

홀리데이 인 마카오
澳門金沙城中心假日酒店
Holiday Inn Macao, Cotai Central
Rooms 1,224
Tel. 853-2828-2228
www.ihg.com/holidayinn/hotels/us/en/macau/qmchq/hoteldetail

로얄 인판트 허버뷰 호텔
ROYAL INFANTE HARBOUR
VIEW HOTEL
Rooms 298
Tel. 853-2883-8333
www.pousadamarininfante.com

★★★ 3 STAR

베스트 웨스턴 호텔 타이파
澳門格蘭酒店
BEST WESTERN HOTEL TAIPA
Rooms 262
Tel. 853-2882-1666
www.hoteltaipa.com

콜로안

★★★★★ 5 STAR

더 웨스턴 리조트 마카오
威斯汀度假酒店
THE WESTIN RESORT MACAU
Rooms 208
Tel. 853-2887-1111
www.westin.com-macau

★★★★ 4 STAR

포우사다 데 콜로안 竹灣酒店
POUSADA DE COLOANE
Rooms 22
Tel. 853-2888-2143
www.hotelcolocane.com.mo

중저가 호텔 안내 사이트

www.macao-budgethotels.org

주요 시내버스 노선



마카오 반도

- 기아 요새
- 세나도 광장
10A 11 26A
- 버스 환승센터
- 샌즈(H)
- 마카오 문화센터
- 피셔맨즈 워프(공사중)
- 마카오 과학센터
- 마카오 페리 터미널
10 10A 28B 32 AP1 N1A
- 투어리즘엑티비티센터
10 28B 32
- 아마 사원
10 10A 11 26 28B
- 그랜드 리스보아(H) · 리스보아(H)
10 25 N2
- 마카오 타워
26 32
- 사이반 대교
- 판다 파빌리온
- 판다 봉준교

타이파

- 타이파 임시 페리 터미널
- 뉴 센츨리 호텔(H)
11 36
- 마카오국제공항
AP1 26 36 N2
- 갤럭시 마카오(H)(갤럭시 호텔, 빈안트리 마카오, 오쿠라 마카오)
- 더 베네시안 마카오(H)
- 포시즌즈 호텔 마카오(H)
15 21A 26A
- 시티 오브 드림즈(H) (하드락 호텔 마카오 · 크라운 타워즈 · 그랜드 하얏트 마카오)
- 샌즈 코타이 센트럴(H) (콘라드 마카오, 웨라톤 마카오, 홀리데이인 마카오)
- 쿤하 거리
11 33

코타이

콜로안

- 판다 파빌리온
15 21A 25 26 26A
- 더 웨스틴 리조트 마카오
15
- 콜로안 빌리지
15 21A 25 26 26A
- 학사 비치
15 21A 25 26A

※보다 자세한 버스 노선도는 마카오국제공항이나 페리 터미널, 세나도 광장 관광안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Walking Macau

진짜 마카오를 만나는 특별한 순간

Step.1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여행

Step.2 자연과 창조의 아침

Step.3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순간

Step.4 문화와 예술의 길



마카오정부관광청

www.macautourism.gov.mo